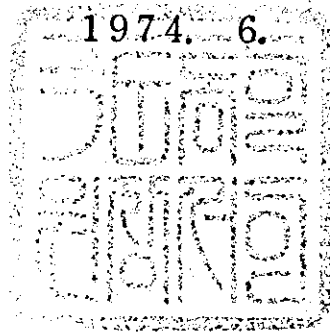


社會變動理論 및 事例에서 본
北韓社會變動展望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上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6.

研究機關：國防大學院 教授

研究責任者：都 興 烈



第1章 序論 3

第2章 社会變動의 一般理論 6

 第1節 T. Parsons 의 社会体系均衡理論 6

 第2節 R. Dahrendorf 의 集团葛藤理論 9

 第3節 A. Etzioni 의 巨視社会学理論 17

第3章 共產主義国家의 社会變動事例 23

 第1節 蘇聯 25

 第2節 東欧共產圈 36

第4章 北韓社会의 變遷過程과 社会実相 45

 第1節 「쏘비에트」政權扶植期 45

 第2節 金日成支配体制 確立期 48

 第3節 「섬블」操作, 大動員体制 強化期 54

 第4節 新狀況 과의 摩擦期 62

 第5節 小結論 66

第5章 北韓社会의 變動展望 68

 第1節 統治名分面 68

 第2節 權力構造面 70

 第3節 經濟面 70

 第4節 社会·文化面 72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117쪽)

第6章 結論 및 對策	74
第1節 結 論	74
第2節 對 策 (方 向)	76

第 1 章 序 言

共産黨이 執權하는 社會가 맑스·레닌主義가 豫言한 圖式대로 어김없이 發展해 나간다면 共産主義의 낮은 段階라고 하는 社會主義 社會의 變化過程은 그 內容의 民族的 歷史的 特殊性으로 因하여 各異하고 多樣하다고 하더라도 共産主義의 보다 높은 段階라고 하는 共産主義社會를 指向할 것이다.

그러나 맑스·레닌主義의 명제대로 共産黨이 執權하는 社會가 반드시 나가지 않고 있는데서 問題가 있으며 本 研究課題가 提起되고 있다.

非스탈린 運動의 指導者이고 蘇聯의 平和共存 外交路線의 提唱者이며 그것을 實踐에 옮긴 후루시초프는 1960年 6月 21日 브카레스트에서 열린 루마니아 共産黨 第 3次大會에서 다음과 같이 演說하였다. 「具體的 情勢를 無視하고 世界에 있어서의 關係變化를 無視하여 전혀 달라진 歷史的 事情下에서 레닌이 말한것을 그대로 反復할 수는 없다.

만약 내가 ABC를 배우며 文字를 言語로 엮는 것을 배우고 있는 어린이같이 行動한다면 進歩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읽는 것을 바르게 理解하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時代의 具體的 條件에 그것을 適用하며 發生한 情勢를 고려에 넣어 現實의 힘 關係를 고려에 넣을 수 있지 않으면 안된다」

후르시초프의 이러한主張은 맑스·레닌主義의 理論과 命題가 國家權力을 가진 共産黨이 國家를 發展시키고 또 國際關係에 實効的으로 對處해 나가는데 있어서 部分的으로 陳腐해지고 벌써 有効性을 잃었다는 것을 端的으로 指適한 것이라고 보겠다.

比較的 現實感覺을 가진 共産國家 指導者의 이러한主張도 參考로 하여 소위 社會主義 段階에 있다고 하는 共産國家 發展方向의 未確定性을 研究課題로 삼게되는 것이다. 바로 이 未確定性은 그 發展方向의 여러 가지 可能性을 示唆해 주며 역시 社會主義 段階에 있다고 하는 北韓社會의 變動可能性 研究의 意義를 파악한다. 同 研究에 있어서 共産主義 社會의 一律性을 前提로 하고 經驗的 面에 重點을 둔다면 蘇聯 및 東歐 共産諸國의 歷史的 變動過程과 發展過程에서 北韓社會의 將次 變動方向의 패턴을 찾아 볼수 있겠다.

이 論文은 위와같은 目的意識下에 社會變動에 關한 一般理論을 檢討하여 社會變動의 決定變數를 추출하고 이 變數와 蘇聯 및 東歐 共産諸國의 歷史的, 經驗的 社會變動의 패턴을 北韓社會變動에 適用, 可能性을 檢討하였다.

따라서 北韓社會의 變動展望은 北韓社會體制의 歷史的 變遷過程과 現時點에서의 北韓社會의 實相이 또한 分析 檢討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들 가운데는 北韓社會의 變動展望에 대해서 極端的으로 相反되는 見解로 갈라져 있는것 같다. 그 하나는 西歐式 概念은 아니지만 여하튼 自由化, 民主化에의 變動可能性을 과대시하는 傾向이고 다른 하나는 自由化, 民主化의 變動可能性을 絶望視하는 傾向이

다. 이 問題意識은 常識的인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科學的인 分析方法에 基礎를 두어야 올바른 것이 된다. 本稿는 北韓社會의 變動展望을 第3者的인 立場에서가 아니라 民主統一의 실마리를 찾는 目的을 두고 研究하였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共產主義社會의 範疇에 屬하는 北韓社會의 變動과 그 方向은 多分히 未確定的인 것인 만큼 우리나라 統一問題解決에 바람직한 方向으로 돌리기 위해 外的으로 能動的인 作用을 加해야 할것이다. 물론 그 作用은 北韓社會의 變動要因을 올바르게 把握한 前提위에서 施行하여야 하며 여기에 本課題의 意義가 있다.

第2章 社会變動의 一般理論

第1節 「파슨스」(T. Parsons)의 社会体系均衡理論

어느 社会体系를 莫論하고 恒久的인 安定性을 가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社会体系도 窮極的으로는 人間要求의 表現이며 人間の 要求는 時代나 狀況의 變化에 따라 變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Parsons 는 一般行動体系를 4 가지 機能에 따라서 社会体系, 文化体系, 퍼서나리티体系와 行動有機體(The Behavioral Organism)로 分類하고 있다. 이들 行動体系의 下位体系(Sub-System)가 수행하는 第一意的인 機能(The Primary Function)을 보면 유형유지(Pattern Maintenance), 統合(Integration), 目的達成(Goal Attainment)과 適應(Adaption)이다.

行動体系의 構成單位의 調整을 다루는 第一意的인 統合機能은 社会体系에 귀속된다. 行動体系의 行動樣式 또는 유형을 유지하는 유형유지기능은 文化体系에 귀속된다. 文化体系는 ego의 기대체계의 組織에 關聯되는 기호 또는 상징으로서 特定한 意味를 갖는 상징체계의 復合体系이다. 目標達成 機能은 個人的 퍼서나리티에 귀속된다. 퍼서나리티는 行動過程의 一次的 機關(Primary Agency)으로서, 퍼서나리티의 만족을 最大로 充足하는 것이 行動의 目標이다. 行動有機體는 適應의 下位体系로서 物理的 環境과 相互關聯性을 갖는 第1次的인 메카니즘이다. 1)

註1) The System of Modern Societies, P.5

行動體系의 下位體系인 社會體系는 人間 個個人的 相互作用으로 構成되어 있는 同時에 이들 個個人들은 또한 有機體이고, 퍼서나리티이며 文化體系의 參與者들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社會體系와 文化體系, 퍼서나리티, 行動有機體는 相互浸透(Interpenetration)라는 聯関을 갖게 된다.²⁾ 즉 社會의 性格은 社會의 文化的 條件에 依해 規定되고 一旦 形成된 퍼서나리티體系는 文化體系와 社會體系에 作用을 가하고 文化變動, 社會變動의 動因이 되기도 하며 피드백 體系가 形成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퍼서나리티 역시 既存의 社會構造에 對한 社會成員들의 適應過程에서 形成되고 이데오로거나 文化體系, 社會體系는 社會成員의 퍼서나리티 存在樣式에 근거한다. 따라서 特定社會의 社會體系, 文化體系, 퍼서나리티體系는 獨自적으로 存在하기 보다는 三位一體的 相互作用속에서 關係를 맺고 있다.

그러면 이들 行動體系의 相互 聯関性에는 어떠한 次序의 順位가 있는 것일까? 파슨스에 의하면 分析的으로 區別된 體系의 相互聯関性을 組織하는 統制의 次序는 統制의 Cybernetic 側面을 가지고 있다. 그의 네가지 機能次元에서 보면 適應은 目標達成에 依해서 統制되고 目標達成은 統合에 依해서 統制되고 統合은 類型維持에 依해서 統制된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一般行動水準에서 보면 行動有機體는 퍼서나리티에 依해서 統制되고, 퍼서나리티는 社會의 規範的 役割構造인 社會體系에 依해서 統制된다. 그것은 다시 文化體系에 依해서 統制된다. 따라서 文化體系는 統制의 階

註2) Ibid.

서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면서 物理的 世界, 有機體, 퍼서나리티와 社会体系에 對해서 文化的 價値를 코뮤티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우리의 關心이 集中되는 經驗的으로 惹義있는 社会理論들은 數多한 下位体系를 포용하고 있는 複合体系 (Complex System)을 대상으로 하게 마련인데 파슨스에 依하면 이들 複合的 社会体系的 潛在的 構造變動 原因은 外生的인 것과 內生的인 것, 또 이들 兩者의 複合的인 것이 있다고 說明한다.

社会構造 變動의 外生的 要因은 우선 特定 社会体系的 第1次的 환경으로서의 有機體系, 퍼서나리티体系, 文化体系的 內的 變動을 들 수 있다. 예컨대 人間有機體의 유전적 변화 내지 全國民의 유전적 특성의 變化등이 人間行態와 社会的 役割行態 내지는 當該 社会体系的 社会化의 能力에 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그것이다.

다음 內生的인 變動概念은 表現하는 가장 一般화된 概念은 「緊張」이다. 緊張은 一定体系的 下位体系間의 均衡이 기울어지도록 壓力이 作用되는 경우로 体系 內的인 緊張이 高調化되면 既存의 統制 메카니즘으로는 規範的 期待에 根拠한 同調性을 創出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는 둘 혹은 그 以上の 下位体系들 간의 인풋-아웃풋關係의 不均衡을 뜻하는 것으로서 体系的 均衡을 해치게 된다. 이때 体系安定을 維持하기 위한 가장 理想的인 方法은 同調性的, 完全한 회복을 追求하는 길로서 이것이 成功하면 緊張이 解決된다.

끝으로 緊張은 構造의 變動을 통하여 해소될 수도 있다. 그는

社会体系를 制度化된 規範文化의 類型이라 定義하므로 社会의 構造的 變動이란 파슨스에 依하면 規範文化로 說明된다.

파슨스는 또한 一定된 体系는 內的 緊張의 大部分을 흡수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低位의 統制水準에 作用하는 內生的 내지는 外生的 變化를 適時에 中性化시킬 수 있다.³⁾ 따라서 그것이 높은 水準에서 構造變動을 야기시킬 수 없게되고 이는 体系의 均衡을 해치지 않는다. 따라서 体系를 攪亂시키는 要因에 加해져는 統制의 水準이 높으면 높을수록 構造變動의 可能性은 크리라는 命題를 뒷받침해 준다.

그는 또한 社会構造를 說明해 주는 主要한 分析的 概念(價値의 段階秩序, 專門化된 規範, 組織化된 集團, 役割) 중 組織化된 集團이 當該 体系의 目標設定, 統合 및 制度維持에 加할 수 있는 影響力이 큰것을 強調하며 指導的 階層의 集團組織的 變化가 社会의 構造變化에 미치는 影響을 중시하고 있다.

以上에서 파슨스의 社会体系·分析모델을 研究에 必要한 限度內에서 考察하였다. 이 分析內容은 北韓 社会의 變動展望에 利用하거나 또 利用可能性의 진단 및 그 限界를 밝히기 위한 前提 作業이었다.

第 2 節 「다렌돌프」의 集團葛藤 理論

파슨스는 社会学界에서 광범한 그리고 重點的인 論評을 자아낸 一群의 理論的 論文을 이미 내놓았다. 우리가 特히 妥當하다고

註 3) Parsons, An outline of the social system

밀는 그의 研究에 關한 批判은 다음과 같은 것을 包含하고 있다.

첫째로 파슨스의 理論은 社會學的 理論이 人間行動에 關한 一般 理論의 部分的側面이라는 恣意的인 假定에 立脚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파슨스의 社會學的 理論은 그 權威있는 說明에도 不拘하고 心理學的 理論과 分離할 수 없다는 것이다.⁴⁾ 셋째로 파슨스의 모델은 權力이나 모든 制度的 構造에 關한 事實을, 重要視하지 않으며, 支配構造도 同한히 한다. 넷째로 葛藤概念이 明確히 들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利益의 調和는 어느 社會에 있어서나 自然的인 特徵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18세기의 自然主義 哲學家들의 生覺과 共通된다. 다섯째로 葛藤의 技術的 除去와 놀라운 調和와의 成就是 그 一般理論으로 하여금 社會變動, 歷史를 다룰 可能性을 除去한다⁵⁾ 고 批判하고 있다.

여하튼 파슨스의 理論模型은 社會的 葛藤이나 變動의 해명을 위해서는 적지않은 약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는 社會的 均衡의 維持에 寄與하는 모든 機能만을 強調하고(順機能) 혹시 社會的 不均衡의 素因이 되는 機能的 側面이 發見되면 이는 간단히 逆機能으로 規定하고 그 以上の 解明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比하여 葛藤理論은 그 論理的 展開에 있어 均衡理論에서 別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逆機能에 착안하여 이를 中心으로 理論 構成에 臨하고 있다.

다렌도르프는 葛藤理論으로 構成되어 지는 強制理論의 特徵을 다음

註4) 李萬甲, 社會學 理論 P.373

註5) C. Wright Mills, Sociological Imagination P.42

과 같이 集約적으로 要約하고 있다.

(1) 모든 社會는 각 시점에서 變化속에 처해 있다.

(2) 모든 社會는 軋轢과 葛藤을 나타내고 있다.

(3) 社會內的 各種 要素들은 社會變動에 自己 나름대로 寄與를 한다.

(4) 모든 社會는 어떤 成員들에 對한 他成員들의 強制에 依거하고 있다.⁶⁾

위와 같은 強制理論의 立場에서는 그는 社會分析의 核心을 권위에 두고 있다. 그는 權威의 相互한 分配야말로 언제나 組織的인 社會葛藤의 決定要因이라고 生覺하기 때문에, 權威關係가 形成되면 葛藤이 반드시 생긴다고 보았다. 統合理論이 社會分析의 單位로서 社會體系라는 概念을 使用하고 있는데 對하여 그가 쓰는 葛藤理論은 맑스·웨버의 카테고리인 命令적으로 조정된 結社(Imperatively Coordinated Association)라는 社會分析의 카테고리를 쓰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의 核心的 카테고리는 命令적으로 조정된 結社에서 行使되는 權威이다. 그가 使用하는 權威의 特殊한 意味는, 첫째로 結社에 있어서 權威의 分配는 葛藤集團 形成의 窮極的 原因이며, 둘째로 權威는 어떠한 結社에 있어서나 두개의 葛藤集團 形成의 原因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支配集團과 被支配集團의 葛藤을 意味한다.

註 6) Dahrendorf, Class and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P. 162

그는 以上과 같이 社会学的 葛藤理論의 가정을 確立한 다음 다시 葛藤集團 (Conflict Groups) 의 形成에 關한 考察을 하고 있다.

그의 葛藤理論 展開의 主要段階를 集約하면 다음과 같다.

(1) 다렌돌프는 利益의 概念을 導入하여 組織共同体에 있어서 相異한 權威位置는 그 地位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葛藤하는 利益을 갖게 한다. 支配的 地位를 갖는 사람들과 服從의 地位를 갖는 사람들은, 그들 地位때문에 그 實體와 方向이 相反되는 어떤 利益을 갖는다⁷⁾ 는 것이다. 組織共同体内에서 類似한 權威地位를 갖는 者들이 共通의 利益을 가질때 이것은 客觀的利益 (The Objective Interests) 이라고 하면, 이 客觀的利益은 다렌돌프로 볼것 같으면 役割利益 (Role Interests) 이다. 즉 그것은 組織共同体에 있어서 權威役割에 따르는 期待되는 行動定向이다. 이 役割利益이 役割遂行者의 立場에서 볼때 潛在的 利益이다. 이와 같은 潛在的 利益이 特定条件下에서 意識的인 目標가 될때 바로 이것이 潛在的 利益이다.

(2) 어떤 支配集團内에도 積極的인 또 消極的인 役割担当者들이 있는데 이들은 각기 共通된 潛在的 利益에 준거하여 일종의 準集團 (Quasi-Group) 을 形成한다. 이들은 單純한 大衆도 아니고 集團도 아니다. 利益集團은 그의 構造, 組織形態, 目標와 構成을 가지고 있다는 点에서 準集團과 다르다.

이들 準集團과 利益集團은 葛藤集團을 形成하며, 이들이 非葛藤集

註 7) Ibid, P.184

團과 다른 점은 支配와 服從關係의 正統性和 關聯된 利益 또는 權威構造때문에 생긴 集團이므로 權威關係가 없는 非葛藤集團과는 區別된다. 準集團은 利益集團보다 規模가 크며 그로부터 利益集團 充員되고 發生되는 集團이다. 共通的인 潛在利益에 依해서 結合된 準集團은 權威의 그 分合的 分配에 依해서 두개의 準集團으로 區分된다. 이들은 곧 權威를 갖는 準集團과 權威로 부터 배제된 準集團이다.

前者는 既存構造의 正統성을 방위하려는 準集團이며 後者는 그 正統성을 공격하려는 準集團이다. 이들 準集團으로 부터 利益集團이 充員되지만 모든 準集團이 利益集團으로 發展하는 것은 아니다. 다렌들프는 이들 條件을 準集團과 利益集團의 매개변수로 보고 다음의 세가지 條件을 들고 있다. 첫째로 組織의 技術的 條件으로서 이들은 組織의 憲章規範, 指導者와 成員, 기타 物質的 要件이다. 둘째로 組織의 政治的 條件으로서, 組織形成을 政治的으로 形成하고, 準集團이 스스로의 利益을 表明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로 組織의 社會的 條件으로서 準集團 成員間의 意思傳達, 準集團이 우연한 機會가 아니라 構造的 類型을 지닌 充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다렌들프는 葛藤集團의 形成에 對해서 一段理論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集團葛藤의 類型에 영향을 미치는 經驗的 測定의 尺度가 될 변수를 論議하고 있다. 그는 이 變數를 全体主義 社會의 葛藤과 自由社會의 葛藤類型을 比較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므로 北韓社會의 變動을 展望하는데 有用한 變數라고

생각한다. 우선 그는 階級葛藤의 強度와 暴力을 다음과 같은 變數와 關聯을 지키고 있다.

(가) 組織의 條件

準集團의 組織構成員들 사이의 「 커뮤니케이션」의 可能性, 準集團의 充員에 있어서의 一定한 體系性, 結社權等 利益集團形成을 위한 政治的 前提條件 내지는 資金, 指導者, 理念 등의 技術的 諸條件이 密接히 關聯되어 있다. 葛藤集團이 스스로 組織을 만드는 것이 許用되면 격렬한 葛藤形式은 배제된다.

(나) 多元主義對 重複

多元主義 - 重複의 尺度에 關해서 보면 여러 相異한 結社의 階級型 (Class Type) 이 多元主義인 경우 分離되어 있고 重複現狀의 경우에는 一致 또는 重複되어 있다. 말을 바꾸 前者의 경우에는 한 結社에서의 支配集團에 屬하는 個人은 다른 結社에서는 隸屬集團의 成員이 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의 支配的 地位와 隸屬的 地位가 結社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해서, 後者は 結社가 달라질 망정 支配集團과 隸屬集團의 成員은 變함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國家의 支配集團은 黨, 産業, 軍隊에서도 여전히 같은 사람들이 支配集團인 것이다.

다렌돌프의 가설을 보면 葛藤의 重複度와 그들의 強度 사이에는 密接한 相關關係가 있다. 葛藤集團이 여러개의 結社에서 遭遇하고, 여러번 충돌을 하면 모든 結社의 충돌에서 소모된 에너지는 結合되어 하나의 包括的인 利益의 葛藤이 出現하게 된다.

反面 葛藤의 對立이 多元的이면 葛藤의 強度는 減少된다. 말하자면 財産, 經濟的 地位 및 社会的 身分이 權威의 行使와 一致하지 않기 때문에 服從의 地位에 있는 사람도 比較的 높은 社会的 經濟的 地位를 가짐으로써 滿足할 수도 있다. 權威, 地位와 다른 社会 經濟的 身分사이에 相関關係가 적으면 적을수록 階級の 葛藤은 심하지 않다.

(다) 移動性對 無移動性

다렌돌프는 階級の 開放性과 階級葛藤 사이에는 逆比例 關係에 있다고 본다. 즉 어느 社会에서 上昇移動과 下降移動이 있을수록 広範圍하고 根本的인 階級葛藤은 적어진다. 移動性이 많아질수록 個人間的 競争이 심해 지지만 個人이 階級葛藤에 消耗하는 에너지는 적어진다.

왜냐하면 個個人은 支配階級으로 上昇하거나 被支配階級으로 下降할 機會가 있을수록 階級的 地位가 固定되어 있는 경우보다 그의 全人格을 비쳐서 階級葛藤에 沒入하지는 않게 되기 때문이다.

다렌돌프의 社会葛藤理論은 全体主義國家의 問題點을 밝혀 주는 데 도움이 된다. 그에 依하면 政治的 側面으로 把握한 社会인 「國家」도 一種의 支配集團으로서 단순한 市民과 支配權을 行使할 수 있는 위치에서는 一團의 무리들로 나뉘우고 따라서 政治的 葛藤 또한 社会的 構造的 問題로 풀이한다.

그의 理論中 우리의 關心을 자극하는 것은 그가 葛藤理論을 全体主義社會의 社会變動을 解明하는데 適用해 보고 있다는 點이다.

그는 우선 「葛藤의 条件」부터 論하면서 이를 決定하는 主要 變數인 「流動性」과 「效率적인 規制메카니즘」은 全体主義社会에도 存在할 수 있음을 強調한다. 예컨대 共產社会에서 볼 수 있는 常例화된 「肅清」은 支配權의 担当者的 交替를 通하여 社会的 流動性을 높임으로서 社会的 葛藤을 弱화시키려는 試圖이며 國家, 政党的 内外部에서 政策決定에 關連되는 討論을 体系的으로 促進하는 경우도 그들 特有的 效率적인 規制메카니즘인 것이다.

勿論 大多數의 全体主義國家는 그 指導層의 閉塞와 討論의 抑壓으로 社会的 流動性을 낮추고 葛藤調整을 위한 規制메카니즘의 개발을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경향이 짙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社会的 葛藤의 潛在的 強度는 점증되고 이는 급기야 革命的 性格을 띄기 시작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다렌 돌프의 葛藤測定의 變數 즉 社会組織의 条件, 效率적인 規制메카니즘, 社会流動性等 세개의 變數를 利用하여 全体主義社会 特히 北韓 社会的 變動展望을 測定하는데 그 內容을 檢討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葛藤理論의 代表的 理論家의 하나인 「코저」(Lewis Coser)는 集團關係의 틀속에서의 葛藤의 順機能的 側面은 強調하고 있다. 即 密接히 結束된 集團에서는 葛藤은 必要以上 抑制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히려 적대감의 累積 強化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일단 潛在화된 葛藤으로 表出될때에는 그 不滿이 爆發적인 분출을 하게 되고 全人格적인 개입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⁸⁾ 따라서 그 強度 또한 極大化되고 根本關係가 破壞에 까지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反하여 融通性있는 構造의 경우 葛藤은 緊張解消에 寄與할 수 있고 이는 도리어 集團關係의 安定과 統合에 寄與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開放的이고 融通性이 賦與된 社會의 경우에는 個個人的 集團參與가 全人格的이라기 보다 部分的이라든 點과 複合的成員制 (Multiple Membership)에 依해 여러 集團에 參與가 可能하므로 葛藤의 表出 또한 基本的 集團構造의 破壞에 까지 그 파급효과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個々の 社會構成員들의 自律的인 集團參與가 統制되고 各種의 集團關係가 下向的으로 密接히 規制되는 共產社會의 경우 「코저」의 論旨에 依하면 葛藤은 潛在化하나 일정계기가 주어지면 이는 社會의 構造變動에 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見解이다.

第3節 「에치오니」의 巨視社會學理論

「에치오니」(Amitai Etzioni)는 全體的 社會的 變動은 항상 計劃된 變動과 計劃되지 않은 變動과의 混合樣態인 것으로 規定하고 一定社會가 自身이 意圖하고 計劃된 方向으로 社會變動을 主導하기 위해서는 「自己操從能力」을 갖추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그에 依하면 特定社會의 自己操從能力이란 그 社會가 스스로 自身의 集合的目標를 設定하고 이를 計劃된 變動에 依하여 도달할

註 8) Lowis Coser,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수 있는 能力으로서 이는 <단순한 反應的 適應過程>이나 退嬰 내지는 <非計劃的 變動>과 區別되는 体制自體의 「活性度」라고 說明한다.

一定한 社會의 活性度を 決定하는 主要變數로서 그는 情報, 權力, 同意를 열거하고 앞의 둘을 統制要因으로, 뒤의 것을 同意形成으로 나누어 說明한다. 9)

統制要因은 主로 統治者의 立場에서 조작할 수 있는 變數인데 反하여 同意形成의 次元은 被治者가 主導的 立場을 取할 수 있는 變數인 것이 特徵的인 것이다. 그의 理論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統制要因

(가) 情報能力

어떤 社會體制나 그 社會의 全體的 管理를 爲하여 情報를 수집 처리할 뿐더러 이를 政策決定이나 執行에 有利하게 利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情報의 產出者(수집·소화의 主體)와 消費者(政策決定 엘리트)가 機能的으로 分化되어 있을 必要가 있다. 또한 이때 利用되는 情報의 內容이 刷新的인 것인지 혹은 安定的인 것인지에 따라 全體社會의 變動의 方向이 定立될 수 있다. 政策決定 엘리트는 代案의 形式으로 提示된 몇개의 體系화된 情報中에서 어떤것을 選擇하게 되고 이는 다시 執行單位에 傳達된다. 또한 政策決定者는 수시로 各種의 通信網을 通하여 下位의 執行單

註9) Amitai Etzioni, The Active Society, A theory of Social and Political Process.

位로부터 上達되는 「피드·백」信號 (Feed-back signal) 를 接受하고 이를 次後의 政策決定에 배려할 必要가 있다. 情報機能의 肥大化는 社會的 逆機能의 原因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나) 權力

社會內에 存在하는 可用資源中 어느 程度를 權力의 創出을 위하여 分配해야 하는 問題이다.

權力의 統制를 爲하여 지나치게 資源을 投入하는 경우 이는 可用資源의 相對的 損失을 뜻할 수 있기 때문에 動員된 權力의 量은 물론 그 使用方法에 關해서도 有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適正規模의 힘의 投入은 社會를 活性化시키는데 도움이 되나, 權力의 使用은 자칫하면 一定部類의 社會構成員을 疎外化 시키기 때문에 심각한 問題를 야기시킨다. 統制의 수단이 強制的인 경우 이는 功利的 統制나 規範的 統制에 비해 훨씬 큰 社會的 反響의 도전을 받는다.

(2) 同意形成

統治者와 被治者의 選好의 基準이 合致될때 社會的 同意 (Consensus) 가 形成된다. 따라서 同意라는 變數는 被治者가 統制할 수 있는 要因으로 간주될 수 있다. 새로운 社會에 분출된 集團들이 多樣한 欲求를 政治過程에 投射할때 정치 엘리트가 既存의 勢力集團들의 利益에 準거한 制度化된 同調樣式만에 집착한다면 그 社會體制는 適應能力과 轉化能力을 상실한다.

「에치오니」의 論議에 立脚할때 統制要因과 同意形成은 代替關係

關係에 놓이게 된다. 즉 同意의 程度가 높으면 統制가 相對的으로 減少되고, 同意의 程度가 낮으면 特定目標의 達成을 위해서 政治엘리트는 어차피 統制力을 強化하게 된다. 그러나 同意와 統制가 똑같이 上昇하면 疎外化의 위험없이 計劃된 社会變動을 보다 能率的으로 推進할 수 있다. 附加的 同意는 統制力의 強化에 依해 創出될 수 있는 疎外化의 深化를 相殺할 수 있는 것이다. 同意의 上昇은 또한 보다 疎外化의 위험성이 적은 힘의 使用方法을 案出한다든가 權力의 投入없이 調整의 妙를 살리는 方法等을 通하여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에치오니」는 意圖적인 社会變動을 推進할 수 있는 体制의 自己轉換能力을 評價함에 있어 主要變數로 抽出된 「統制」와 「同意」의 主要因을 中心으로 네가지의 社会類型을 分類한다.

	Active Society	Passive Society	Overmanaged Society	Drifting Society
Control	+	-	+	-
Consensus	+	-	-	+

위의 네가지 類型의 社会中 가장 바람직한 類型은 이른바 「能動社会」(Active Society)이다. 이 경우 統治者는 活性度는 높으나 大衆을 疎外化시키지 않을 수 있는 比較的 柔軟한 權力行使方法을 使用하고, 社会의 情報能力 또한 上位에 있을뿐 아니라 情報의 產出者가 政策決定 엘리트만을 意識할 것이 아니라 大衆의

同意形成過程과 계속 聯関이 맺어 效率的인 統制와 合意의 「메카니즘」을 構築하고 있는 例이다.

따라서 能動社會는 一種의 道德性을 지닌 規範的 權力을 行使하게 되고 따라서 社會는 高度의 合意속에 活性化되는 것이다. 이 경우 全體社會의 「自己轉換能力」이 높을 것은 自明한 일이다.

全體主義的 社會는 위의 類型中 「過度操縱社會」(Overmanaged Society)의 例에 屬하는데 이 경우 高度의 統制와 저위의 同意水準을 示顯하게 된다. 따라서 極端的인 疎外化를 야기시키는 權力이 行使되기가 일수이고 可能한 限 規範的 權力을 動員하고자 示函하나 이것이 強制的 方法에 依存하므로 그 效率을 弱화시킨다.

結果的으로 社會의 自己轉換能力은 制約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에치오니」의 社會變動의 理論展開에 있어 우리의 關心을 끄는 것은 위의 全體主義的 過度操縱社會의 變化의 可能性과 그 方向의 問題이다. 그는 全體主義 社會도 그 統制手段인 強制的 暴力과 宣傳을 教育과 利益定向의 權力行使로 轉換시킴에 따라 能動社會的 類型으로 變化할 수 있음을 強調한다.

資本主義的 民主社會를 가르켜 그는 非操縱社會(Drifting Society)라 부르고 同意의 形成力은 強하나 統制의 弱化로 意圖的 社會變動의 推進力이 制約받게 된다고 指摘한다.

「에치오니」에 依하면 이 경우 두드러진 構造變化가 일어나기 위하여는 行動化의 必要性이 成熟되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卽 危

機의 到來로 同意가 미리 調整이 되기 보다는 動員되는 社会的
「에 토스」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資本主義的 民主
社会가 能動社会로 轉換하기 위해서는 社会的으로 劣勢의 集團들이
社会的 平等概念의 擴大에 의해서 動員되고 全体社会의 活性이 이
를 계기로 높아져야 된다고 主張한다.

第 3 章 共產主義國家의 社會變動事例

社會變動的 源泉을 「맑스」는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一定한 段階에서 일어나는 必然的인 모순」에서 구하고 있으나, 여기서 우리의 關心은 이데오르기에 압각한 「社會法則」의 論理的 分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經驗主義的 立場에서 이미 얼마간의 社會變動을 거친 「보다 앞선」 共產主義國家의 發展經驗을 講究코져 한다.

近年에 들어 많은 發展을 보아온 比較政治 研究分野의 体系的인 分析 試圖로서 「브레진스키」(Z. Brzezinski) 와 「헌팅톤」(S. P. Huntington) 의 共著인 「Political Power : USA / USSR」를 「교차적 體系比較 (Cross-system Comparison)」 方法의 代表的 例로 들 수 있다.

이들은 共產主義的 全體主義 社會들이 經驗하게 되는 産業化와 都市化는 모든 近代社會에서 發見되는 共通文化 現象을 創出한다고 보고 있다. 産業化過程에 따라 이들 社會들도 官僚制度化의 傾向을 表出하게 되고 이에 自然機能의 分化現象에 따른 分業을 尊重하게 된다. 또한 이들 共產主義 社會는 全體社會가 갖는 非合理性에 代置하여 産業社會의 合理的인 慣行을 主導的 社會行動의 類型으로 內面化할 可能性이 커진다. 産業社會의 一般的인 要請에 부응하여 專門的 技術 내지는 管理能力을 가진 에리트階層의 社會的 成長이 두드러지고 이들은 行政過程에의 充員은 물론 끝내는 權力 에리트에의 接近도 不可能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變化의 물결이 일게되면 支配層과 大衆間의 關係 類型에도 變化가 올 수 있다. 成果에만 關心을 두던 集權層은

이제 能率에 神經을 쓰게되고 統制와 抑圧, 또 이데오르기에 依한 規範的 強制보다는 刺戟誘因과 說得이 더 利用되고 分權化 傾向에 依한 權限의 委任現狀이 一般化 될 수 있다.

특히 東歐諸國의 例에 의하면 執權에 리프와 大衆만으로 形成되는 것으로 認識되던 政治過程에 變異가 일어 나고 있다. 卽 적지 않은 數의 利益集團이 政治過程에 投入되어 政治의 規制者로서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시 東歐에서 두드러지게 表出되는 現象의 하나는 共產化 過程에서 強要되고 痛에 짜여진 集産體制가 심한 도전을 받아 와해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卽 그 代表的인 例인 「유고」의 경우 「Kotkhoz」타입의 集團農場이 빛을 잃고 農民의 大部分이 私經營形態의 營農方式으로 轉換했다는 것이다. 이는 차츰 自由競争의 市場制度의 特徵이 되살아나는 結果를 맺어 이른바 「自由放任的 社會主義」라는 새로운 評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계반의 變化樣相은 大衆의 消費 패턴에 影響을 주고 이는 國際社會의 큰 물줄기인 「脫이데오르기」傾向에 부채질하는 結果를 맺고 있다.

특히 西洋文化의 傳統價値의 殘影이 남아 있던 東歐圈의 경우 이러한 變化의 速度는 더 빨라지고 이른바 「自由化」의 물결은 더 거세진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北韓社會의 變動展望에 必要한 經驗的 準거를 알기 위해서 朝鮮과 東歐等 主要 共產主義 體制의 경우를 個別的으로 檢討코자 한다.

第1節 소 련

Walter & Conner와 같은 社会学者는 소비에트体制内에 심각한 政治的 異議가 存在한다는 事實을 소련 社会의 構造的 變化現象과 이에 矛盾되는 政治的 統治樣式間에 乖離에서 考察하고 있다. 即 Conner는 소련 社会가 ㉔發展의 높은 水準에서 示顯되는 「社会의 構造的 分化」와 이에 따른 社会的 複合性的 增大現象에도 不拘하고, ㉕이들 分化를 거듭하고 있는 社会的 諸部門이 統合을 爲하여 政治的 指導体系는 繼續 既存의 「中央의 集權的 命令支配 樣式」(Centralist-Command Mode)을 고집하고 있다고 指摘하면서 소련 社会内の 政治的 異見의 噴出은 이들 相反되는 두가지 現象의 結果이자 그 徵表라고 結論지우고 있다. 10)

소련은 現代 西歐社会와 마찬가지로 複合社会의 基本的 特徵인 構造的 分化現象을 뚜렷이 示現하고 있다. 分化란 쉽게 말해서 「多機能的인 役割構造(Multifunctioned role Structure)가 몇개의 보다 專門化된 構造로 進化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構造分化는 특히 「테크노로지」의 發達, 農業社会主義의 擴大 및 都市化, 産業化的 進行과 더불어 深化하게 되며 이 過程 속에서 家族과 같은 多機能的 單位의 重要性은 감소하고 機能的으로 專門化된 社会 單位의 比重이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社会構造의 分化에 따라 政

註 10) Walter Conner, Tinent in a Complex Society: The Soviet Case, in Problems of Communism (March-April 1973)

治, 經濟, 社会 等 個個의 制度的 領域들은 어느 程度의 自律性을 가지고 모두 自己 領域 特有的 目標에 따라 組織된 特色 있는 單位를 發展시키게 되는 것이다.

分化를 거듭하고 있는 社会의 統合을 위하여는 多様な 戰略이 構想되고 있다. Conner에 依하면 社会統合의 戰略이 成功할 수 있는 潜在力은 主로 다음의 세 가지 變數에 依存한다.

㉑ 戰略을 構想하는 時点까지의 그 社会의 構造的 分化의 정도 내지는 近代性的 水準, ㉒ 그 社会에 傳來된 政治文化(Political Culture)의 內容과 이의 活性度 내지 지구력의 정도, ㉓ 그 社会의 近代化的 目標

위의 세 가지 變數를 中心으로 朝鮮社会의 統合戰略의 內容을 檢討하여 보자.

朝鮮의 경우 旧帝政 「러시아」의 末期인 1885年~1917年間에 이미 經濟적으로 이른바 「飛躍」의 時点에 接近하여 比較的 近代적인 社会의 면모를 갖추기 始作하였다. 따라서 「볼셰비크」의 近代化的 「엘리트」에게 直面했던 朝鮮社会는 이미 社会統合의 問題를 意識해야 할 정도로 構造的 複合성을 示顯하고 있었다.

戰爭과 革命은 「자아리즘」(Jarism)의 宗언을 가졌으나 그의 비호속에 키워졌던 政治文化는 繼續 生命력을 誇示했다.

「러시아」의 政治文化의 特徵으로 地方的, 偏狹主義, 大衆들의 受動的 姿勢, 「자아」專制와 결부된 半 神秘的 樣態 및 發展된 企業家的 精神이나 傳統의 欠如에서 비롯되는 要素로서 - 國家를

広範한 社会, 經濟的 諸問題의 解決者, 推進者 내지 調整者로 認識하는 尙象들을 指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소비엠티」社会는 漸次 構造的 變化를 經驗하며, 複合社会로 移轉하는 趨勢에 있었으나 그 政治文化의 權威主義的 巨民的 要素는 繼續 그 기반을 굳히고 있었나 하겠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볼셰비크」의 近代化의 「프로그램」은 그 目標에 있어서 一方 社会變化를 強力하게 指向할 뿐더러 他方 極히 自衛的인 屬性이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即 「맑스·레닌」主義的 價値体系의 함축적 內容을 檢討할 때 傳統社会를 보다 近代社会로 變形시켜 보려는 意志와 더불어 國家安保에 또한 놀라운 정도의 關心이 表明되고 있다. 事實上 「스타린」의 「一國社會主義」(Socialism in one Country) 主張에서 보여지는 「防禦的 近代化의 推進者」(Defensive Modernizer)로서의 性格은 이미 「레터」大帝의 改革에서 그 맹아가 發見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때 그 뿌리는 자못 깊다 하겠다.

이미 論議한 「러시아」政治文化의 權威主義的, 中央集權主義的 傳統과 安保問題에 對한 朝鮮 指導者의 固着的 關心은 朝鮮 社会의 構造的 分化에 對한 社会統合의 処方을 「中央集權的 命令支配的 樣式」으로 確定지우게끔 誘導했으며 이는 官僚体制의 統制力을 深化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全体主義的 統合」方式은 朝鮮 社会의 近代化의 進行과 더불어 차츰 그 限界性이 엿보이기 始作했고 이는 이른바 「政治領域과 社会領域」間의 不和의 焦點이 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社会統合의 「소비엘」類型은 이른바 「命令支配」樣式으로 이는
傳統社會의 「관습」에 依存하는 統合樣式이나 이른바 「市場社會」
(Market Society)의 「契約」(Contract)的 統合樣式과 區別
되는 組織社會(Organizational Society)의 社会統合의 基本定式
이다. 이러한 命令支配的 社会統合樣式的 경우 社會는 積極的 當
事者와 消極的 내지 被動的 當事者로 分化되어 前者는 万事를 決
定하고 後者는 이에 服從하게 되는 關係가 形成된다.

조선의 경우 「國家, 黨, 官僚體制」(State-Party Bureaucracy)
로 構成되는 政治體(Polity)는 經濟, 軍事, 教育等 專門化된 社會
的 諸部門과의 交涉에 있어 「주고 받기」(Give and Take)式的
去來過程의 前提없이 一方的인 命令支配樣式에 주로 依存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西歐社會에서 支配的인 契約的 調整方式에서 보지 않는
「政治」와 「社會」間의 緊張關係를 造成하게 되고 兩者間의 不和는
그 社會의 構造的 分化가 進行되고 自律性을 要求하는 社會的 專門
分野의 反撥이 높아 질 수록 深化된다.

이러한 社會에서 「支配的 權力 엘리트」는 점차 두가지 觀點에서
寄生的 存在로 認識되기 始作하였다. 첫째 이는 産業化된 社會의
「엘리트」는 構造上 異物體로 看做된다. 왜냐하면 이는 産業的 業
績社會의 特徵은 經濟的 合理性에 永眼하지 않으며..... 그들의
우선적 目的인 權力基礎의 공고화와 그 伸張에 있다.

둘째 支配的 「엘리트」는 余他的 社會集團을 끝없이 榨取하는 存在
들이다. 이들의 絶對的 權力, 独占과 生産手段과 國家財產에 對한

無限한 統制를 통해 大規模의 社會生産을 政治目的의 成就를 위해 利用하고 아울러 自身들을 위해 高水準의 個人的 收益을 얻어 내기 때문이다.

事實上 朝鮮의 黨, 國家官僚體制의 경우 「出世能力」은 機能的 效率性이라는 變數에 依해 決定되기 보다는 오히려 上位者와 人的인 連關에 依存하고 이는 黨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專門的 知識을 갖춘 專門官僚型 (Expert) 보다 아직도 이른바 政治的 理念紙 (Red) 가 有利한 立場이다. 그러나 官僚의 生産指向型 動機가 重視됨에 따라 檢査 業種變數 (Per-formance Criteria) 가 重視되고 있음은 否認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朝鮮의 경우 순수한 意味의 「Red」보다는 오히려 專門的 能力을 갖춘 政治的 人士가 重視되는 傾向, 다시말하면 「Red」+「Expert」型的 政治 내지 行政 「엘리트」가 要求되는 추세가 支配的인듯 하다.

事實上 朝鮮의 경우 黨, 國家官僚體制에서 長期間 經歷을 쌓은 人物들의 경우 그들의 官僚的 成長過程에서 거의 不可避하게 工業 내지 農業 分野에 關한 管理指導能力, 높고 낮은 水準의 企劃能力을 쌓을 수 있게 되며 이는 朝鮮의 적지 않은 頂上級 政治指導者가 一種의 「테크노크라트」類型으로 看做되는 節次이다.

뿐만 아니라 50年代 以後 朝鮮의 政治的 指導體制의 主要한 核心的 地位에 職業的 政治人이 아닌 外部의 專門的 知識人이 投入된 事例가 부적늘고 있다. 다시 말해서 專門的 職業人으로

社会的 成長을 한 非政治的 人士들이, 中央委員會나 政治局 要職에 參與하여 主要한 政策決定에 일익을 担当하고 있는 例가 그것이다. 特히 經濟分野의 支配人 내지 企劃專門家들이 拔擢되고 이들이 큰 어려움 없이 行政 既存 「엘리트」 내지 政治 「엘리트」로 轉化 되는 現象이다.

例컨대 政治「엘리트」를

(가) 經歷의 初期段階에서 政治「엘리트」로 投入되므로써 專門的 職業集團과 別다른 特別한 聯関을 맺지 못한 類型과

(나) 經歷의 中間段階 혹은 그 後半에서 政治「엘리트」로 投入되므로써 政治體 外部의 專門的 職業集團과 密接한 聯関을 맺고 있는 類型으로 分類하고 前者를 充員型 (Recruited Officials) 後者를 拔擢型 (Coopted Officials) 로 이름 짓는 경우 前者는 이른바 「Red」로써 屬性이 強하고 後者는 「Expert」의 屬性이 強할 確率이 높다. 이렇게 볼 때 朝鮮의 代表的 權力機構인 中央委員會 (Central Committee) 에 새로 構成員이 된 政治「엘리트」의 成分 分布의 變遷을 살펴보면 兩者間의 傾向比較를 할 수 있다. 11)

註 11) Frederic Fleron, Representation of Caste Types in the Soviet Political Leadership, in Bany Farrel, Ed.

中央委員會의 政治「엘리트」構成比較

年 度	類 型	%	數
1952	충원 : 발탁	75.4 : 24.6	43 : 14
1956	"	69.9 : 30.1	65 : 28
1961	"	49.7 : 50.3	74 : 75

위의 圖表에서 볼 수 있듯이 「스타린」時代인 1952年の 경우 中央委員會에 새로 投入된 政治「엘리트」中 充員型이 75.4%로 발탁형 (24.6%)에 비해 越等한 구세를 보였으나 이미 1960年代에 접어든 1961年の 경우 이 關係는 역전되어 充員型이 49.7%로 半數 未達인데 반해 拔擢型이 過半으로 불어나는 현상이 惹起된다.

조선과 같이 社會主義的 轉化를 위한 初期段階를 이미 오래전에 극복하고 차츰 經濟發展 一辺倒의 動員政策에서 均衡的인 社會發展 指向으로 方向을 바꾸고 있는 社會의 경우, 黨, 國家官僚體制 内部에 자리잡고 있는 多樣한 制度的 利益集團 (Institutional Interest Groups) 들, 例컨데 <黨僚派, 行政官僚派, 經濟支配人 내지 企劃担当者 集團, 軍部 엘리트, 外交專門家等間의 相衡하는 利害關係가 形成될 계기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權力の 指導層 内部에서 生成되는 利害相衡은 결국 調整과 去來의 必要性에서 소위 「엘리트」間의 官僚政治 現象을 불러 일으키고 이는 이른바 「制度的 多元主義」 (Institutional Pluralism) 의 싹을 키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職業的 政治人の 役割보다 專門的 知識人の 比重이 높아진다는 一般的 傾向은 결국 主要한 政治的 意思決定에 政治的 「이데올로기」性보다 技術的 知識人の 合理的 慣行이 더 投影될 수 있다는 可能性을 示唆한다. <다만 이들 <專門官僚型의 技術的 知識人들의 體制批判的 能力을 지나치게 높게 評價하기 어려우니 이들은 知性的 「인사이드」(Insider)로서 異議提議者로 自己役割을 認識하기 보다는 自身の 出世能力開發에 더 神徑을 쓸 계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一般的으로 볼 때 自由主義的 政治體制의 경우 政治權力の 配分 過程에서 疎外된 政治的 異議論者들은 政黨이나 其他 壓力集團의 形成을 通하여 自身들의 政治的 意志를 表出한다. 그러나 共產主義體制의 경우 政治的 異議論者의 自律的 組織活動은 嚴禁되며 最善의 경우 <體制內的인 이른바 制度的 利益集團의 形成이 非公式的으로 容認될 뿐이다. 따라서 黨, 國家官僚體制 内部에 可能한 限 <體制內的 批判을> 감행할 수 있는 異議論者들의 投入이 必要한 것이다. 特히 政治體内に 過少代表된 集團利益 即 非制度的 集團利益을 結束 表明해 줄 수 있는 潛在力을 갖춘 人物들의 參與가 要求되는 것이다. 即 이러한 屬性을 지닌 이른바 (숨겨진 民主的 野黨) (Concealed democratic opposition)이 적어도 中央委水準에 充員될 수 있다면 體制改革을 위한 계기를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批判的 能力이 認定되는 創造的 知識人の 경

우, 頂上級 政治指導體系에의 投入은 거의 단절되고 다만, 技術的 知識人의 경우에만 이것이 現實的으로 可能한 것이다.

조선의 경우 「스탈린」死後 絶對的 支配者가 不存하는 狀況 속에서 比較的 극단적인 反知性的 彈圧은 피하고 있다. 이는 조선 社會에 嚴存하는 「인텔리겐차」階層의 政治的 支持를 考慮한 政策 方向으로 理解할 수 있다.

조선 權力層의 對知識人 政策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그들의 宗教政策이다.

조선의 政治指導層은 「말초 마르크스」主義에 對각해서 根本的으로 宗教에 關해 敵對的인 立場을 취하여 窮極的인 抹殺을 企及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宗教에 對한 原則的으로 같은 立場은 取하고 있는 中共이 宗教의 將來에 對해 比較的 樂觀的인 展望과 余有있는 處方을 하고 있음에 反하여 조선은 60余年間의 反宗教政策에도 不拘하고 宗教의 終末에 對해 極히 悲觀的인 觀點에서 있는 形便이다.

이는 무엇보다 조선의 경우 共產化가 成功했을 當時에 이미 뿌리 깊은 傳統的 世襲으로서 制度的 宗教 (Institutional Religion) 인 「러시아」正敎會가 莫重한 社會的 役割을 担當하고 있었고 「말초」主義인 世俗的 福音觀도 이 歷史的 장벽을 完全히 打破시키기에는 너무나 弱약했던 것이다.

「볼셰비크」政權은 처음부터 極히 反宗教的 政策을 強行하여 1920年~30年代에는 그 頂點에 이른감이 있었다.

그러나 世界 第2次大戦 当時 宗教的 상징이 朝鮮 軍人の 士氣提
高를 위해 무척 緊要한 것을 認知하자 宗教迫害의 고삐를 급작하
게 늦추었다. 이에 大略적으로 1958년까지는 反宗教政策의 深度가
前戰水準 以下에서 맴돌았으나 1958年 以後 余他的 모든 文化的
領域에서 새로이 自由로운 氣運이 팽배할 무렵, 宗教的 領域에서는
오히려 時代 逆行的인 反宗教政策이 그 열도를 가하기 始作하여
현재에도 東歐는 물론 中共에 비해 훨씬 더 경색화된 宗教政策을
固守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制度的 宗教으로서의 「러시아」 正教會와 몇몇
「프로테스탄트」集團들이 60년이 넘는 「실비에트」治政속에서도
계속 朝鮮 人口의 一定階層을 포용하여 影響力을 驅使하고 있을
뿐 더러 戰後 이른바 「体系的, 効率的, 教育的事業이 欠如」된 朝
鮮內 一部 地域에서는 宗教活動이 급속히 재활동되었던 事例로 미루
어 朝鮮 當局은 潜在的 反体制集團으로서 宗教集團의 繼續性에 대
해 거의 절망적인 立場에서 物理的 彈圧에만 一貫하는 形便이다.

朝鮮 當局은 靑少年 敎化問題에 큰 關心을 集注하였으니 人間이
完全한 創造物이기 때문에 敎育과 科學을 通하여 共產主義가 내세
우는 世俗的 理想을 實現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들의 社會化
過程에 關与하므로써 社會主義的 第二世 敎育에 큰 힘을 기울였다.
특히 이러한 敎化 및 動員目的을 위하여 創出된 가장 重要한 組
織으로 「KOMSOMOL」(Soviet Communist Youth League)를
들 수 있으니 敎育 및 就業機會를 얻기 위하여는 이의 許可가

큰 比重을 차지 했다. 그러나 이러한 巨大組織에 의한 同意管理 裝置는 靑少年들의 經歷主義, 冷笑主義, 無關心等을 助張해 왔다.

北韓社會의 變動展望을 하는데 있어서 위와 같은 朝鮮社會의 變動要因, 卽 政治面에서 「스타린」死後 카리마적 指導者가 不在한 狀況에서 權力暗闘가 持續되면서 非스타린運動이 強力하게 일어났다는 點, 權力構造에서도 「Red型 + Expert型」의 變動을 갖어왔다는 點이다. 1952年 朝鮮의 「Red」對 「Expert」比率이 75.4 : 24.6%에서 1956年 69.9 : 30.1%, 1961년에 49.7 : 50.3%로 增加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12)

支配樣式도 中央集權的 命令支配 樣式에서 集團指導體制로 轉換하므로써 「制度的多元主義 傾向을 보였다 하는 點이 適用될 것이다.

經濟的인 面에서는 후르시초프가 地方分權的 管理方式을 推進하고 特히 리베르만 經濟改革案을 採択한 點, 또 코시긴 역시 技術革新, 콜호즈의 自主性 및 獨立採算制, 價格, 利潤制度 導入한 點이 北韓 社會變動에 適用할 수 있겠다.

社會文化側面에서는 「KOMSOMOL」에 對한 靑少年의 無關心 卽 에리반 大學卒業生 60%가 強制勞動을 履行하지 않은 것에서 보는 것처럼 政治社會化的 限界性 노정되고, 사하로프나 솔제니친과 같이 知識人의 自由化運動, 體制批判運動이 일어나고, 農村地域에 宗教活動이 復活되고 西歐式 音樂, 무용, 짜즈가 모스크에 流入되었다는 事實平等이 北韓 社會變動에 適用할 수 있겠다.

註 12) Aldine Poble, Political Leadership in the Soviet Union.

第2節 東 歐 諸 國

東歐에서 두드러지게 表出되는 현상은 집현 엘리트와 大衆만으로 形成되는 것으로 認識되던 政治過程에 變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即 적지않은 數의 利益集團에 政治過程에 投入되어 政治의 規制者로서 汗땀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共產化過程에서 強要되고 틀에 짜여진 集産体制가 심한 도전을 받아 瓦解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即 그 代表的인 例가 「유고」의 경우 「Kolkhoz」타입이 集團農場과 빛을 잃고 農民의 大部分이 私經營形態의 영농방식으로 轉換했다는 것이다.

이는 차츰 自由경쟁적 市場制度의 特徵이 되살아나는 結果를 맺어 이른바 「自由放任的 社會主義」(Laissez Faire Socialism)라는 새로운 評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諸般의 變化樣相은 大衆의 消費패턴에 影響을 주고 이는 國際社會의 큰 물줄기인 「脫이네오르기」경향에 부채질하는 結果를 맺고 있다.

새로운 엘리트型인 後革命世代의 經營者 出身 엘리트는 自然 革命이나 理念보다는 安樂椅子를 더 追求하게 되고 大衆 또는 消費文化의 影響속에 價值體系의 變化를 經驗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西洋文化의 傳統價值(自由, 信仰, 民族主義)의 殘影이 남아 있던 東歐圈의 경우 이러한 變化의 速度는 더 빨라지고 이른바 「自由化」의 물결은 더 거세진다.

이러한 東歐諸國의 社會變化는 1956年「스타린」格下를 계기로 「맑스·레닌」主義에 對한 單極的 解析權이 허물어지자, 東歐의

知性的 「맑시스트」들은 上層階級の 「이데오로기」로 變調된 「歪曲된 意識」에 對抗하여 「맑스」主義, 本然의 立場에서 理念批判을 감행하기 始作한데서 비롯된다.

이들 前衛的 知性들은 또한 여기서 한걸음 더 發展하여 「맑스」自身이 當代에 보지 못했거나 혹은 그 當時 提起되지 않았던 諸般 難題에 對한 解答을 求하는 問題에 까지 關心을 集注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맑시즘」의 「스타린」的 独占解析에 對抗하는 東歐의 이른바 「多中心化」(Polycentric) 運動은 「폴란드」에서 始作하여 「헝가리」, 「체코」 특히 「유고」에서 그 開花현상이 뚜렷해졌다. 이러한 東歐의 「이데오로기」的 解氷은 近世의 啓蒙運動에 比喩될 수 있는 一種의 「맑스」主義의 「루네쌍스」로써 이는 비단 Georg Lukaco가 主張하는 「맑스」로의 복귀가 그 目標가 아니라 「맑스」와 함께 「맑쓰」를 초극하는 改革的 意味가 弱하게 함축된다. 이는 「스타린」支配下에 쓰라린 經驗과 社會主義 發展에 對한 失意에 따른 知性的 反抗意識의 發展的 表現으로서, 이들 「맑시스트」的 啓蒙主義者들은 다음과 같은 問題를 認識하기에 이른 것이다.

階級을 초월하는 倫理的이며 根本的인 問題가 存在한다. 即 社會主義下에서도 人間疎外 (Entfremdung) 을 經驗하게 되며 그 壓力은 自由로운 天國의 約束으로는 輕蔑될 수 없으며 또한 「맑쓰」自身에게서도 助言을 얻기 힘들다.

官制的 「맑시즘」에 内在해 있는 歪曲된 意識은 그 自体로서 이러한 人間疎外の 要因이 되며 科学的 技術的 發展은 疎外の 새로운 形態로서 이는 「맑스」当代의 中心「테마」였던 勞動의 疎外보다 더 重压的이다.

「맑스」가 共産黨宣言에서 分明히 「個個人的 自由로운 發展」이 「萬人의 自由로운 發展」의 前提임을 公言하였으나 個人的 人格의 共産主義的 目標追求 過程에서 무참히 犧牲되었으며 이는 특히 「스타린」的 獨裁속에서 더욱 深化되었다. 이에 對抗하는 「휴머니즘」的 社會主義運動을 그 非「스타린」的 解析에 力點을 두어 多元的 「맑스」解析의 全體를 總稱하는 概念으로 「네오 맑시즘」(Neo-Marxism) 으로 불리운다.

이른바 「네오 맑시즘」의 몇 가지 特徵적인 단면을 抽出하여 보면 이는 우선 人間意識의 主体性的 認識이라는 側面에서 考察할 수 있다. 일찌기 社會主義的 「휴머니즘」의 先鋒이었던 Georg Lukacs 는 1923年 그의 代表作 「歷史와 階級鬭爭」에서 歷史속에서 發頭되는 人間意志의 能動的 主体性を 強調하고 「土台」로서의 客觀的, 社會的 存在보다 「프로레타리아」의 主体意識이 歷史의 原動力이 된다는 論旨을 펴으로써 俗化된 「레닌」主義의 「反映論」을 物象化라고 宣言해 버렸다. 그의 끈기 있는 批判精神을 1950, 60年代를 거치면서 蘇聯型 「맑시스트」들의 環境決定論的인 官學的 唯物史觀에 의한 人間의 主体性否認에 對抗하므로서 疎外된 人間意識의 再評價의 제기를 찾았다. 事實上 東歐의 反抗的 知性들의

反「스타린」主義 運動의 根底에는 人間의 主体意識의 回復이라는 哲學的 命題가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東歐知性들의 새로운 「맑스」解析의 口號的 絶叫은 무엇보다 그들의 人間疎外論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휴머니스트」였던 「젊은 맑스」에 처한 이들의 知的인 향수는 人間疎外를 強要하는 「스타린」의 敎條主義, 黨官僚主義에 처한 批判으로 發展했다.

社會主義 「휴머니즘」의 불길어 가장 강열히 불붙은 「폴란드」의 젊은 知性人들은 이미 1954年에 反「스타린主義」의 기치밑에 「새로운 社會主義모델」을 만들어 民主主義的 自由回復의 强령은 「보·보로스토크」紙에 發表하므르써 東歐의 「네오·맑시즘」의 첫 발걸음이 띄어졌다. 13) 무엇보다 「폴란드」의 共産黨의 理論的 指導者였던 Adam Schaff 는 그의 公的 立場에서 脱皮하여 「폴란드」에도 硬化된 官僚主義에 처한 人間疎外가 있음을 宣言하고 그의 代表作인 「人間의 哲學」을 通하여 社會主義的 「휴머니즘」에 立脚한 修正主義的 人間論을 폈다.

이와 같은 東歐知性들의 「네오 맑시즘」運動의 가장 극적인 表現은 1969年 「체코」의 代表的 知識人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二千語 宣言」이다. 이는 「프라하의 봄」의 永統化를 祈願하는 創造的 知性들의 運命的 絶叫로서 이는 「社會主義體制는 人間的인 것으로 만드는 일이 自己들의 目的이다」라고 「宣言하고 言論의

註 13) 申一澈, 네오·맑시즘과 人間의 問題, 知性 (1971年 11月), P. 124.

自由야말로 이를 위한 必須條件이라고 明示했다. 二千語宣言作成의 主役의 한사람인 K. Kosik는 「체코」의 「휴머니즘」의 社会主義의 代表的 人物로 그는 東歐를 뒤덮은 「스타린」主義的 非人間化의 危機를 哲學的으로 「全般的 操作本能性」(Total Manipulation)의 觀念으로 規定하고 이러한 傾向을 深化시키는 技術的 知性的 體系에 對抗하여 批判的, 主体的 決斷을 통해 技術万能 絶對化의 誤謬를 破壞할 수 있는 이론바 「弁証法的 理性」의 回復을 主張하고 있다. 14)

「네오·맑스」主義의 批判의 화살은 또한 党的 實踐的 意志가 모든 真理의 基準이 된다고 보는 이론바 「党派性 理論」으로 向한다.

「党派性理論」은 哲學을 비롯한 모든 知的 論争의 最終的 裁決權은 党에게 歸屬되어야 한다는 論理에 基礎한 이론바 「체制的 맑스主義」의 表現인 것이다. 따라서 党派性理論에 立脚한 党的 意志는 例外 없이 「프로레타리아」의 이름을 빌려 正當化되고 教條化되며 모든 知的 活動은 政治(党)의 侍女로서 그 存在理由가 있을 뿐이다.

党派性理論에 対한 가장 強力한 制度的 反撥은 「유고」의 이론바 「社会的 自營体制」로서 이는 上向的 意思形成 原則을 通하여 一黨独占体制의 留保下에 「프로레타리아」 이름으로 恣行되는 獨裁

註 14.) 前掲書, P. 133.

形成을 內的으로 民主化, 自營化하려는 努力의 表現이다. 실제로 「유고」의 경우 國會는 黨과 行政府에 對해 高度의 自律性을 유지하며 특히 이 나라 特有의 聯邦體制로 인하여 權力의 過度한 集中化는 어느 程度 制御되고 있다.

특히 1966年 10月 黨改革으로 因해 黨政治局은 단순한 執行機關으로서 中央委員會의 決意를 實施하는 機能만 부여되었고, 政治局委員은 또한 이러한 行政府의 公職도 兼職못하도록 規定되었다.

따라서 黨은 國家로부터 分離되고 그 構造的 民主化를 통하여 종전까지의 命令機構에서 理念的 指導機構로 그 意味가 바뀌었다.

이미 紹介한 「폴란드」의 Karakowski 의 「知的 맑스主義」의 立場도 敎條主義的 黨派性理論도 否定에서 그 論理의 起點이 發見된다. 그에 依하면 「어느 「맑스」解析이 「맑스」主義的이나의 判定은 全적으로 一般의 方法論的 前提를 基準」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히며 實証的 資料의 重要性을 強調한다.

東歐의 「네오 맑시즘」의 底辺에 흐르는 潮流는 「社會主義에의 多樣한 路」이다. 卽 蘇聯型 社會主義 路線만이 絶對性을 띤 것이 아니라 「自國原則」의 妥當性을 인정해야 한다는 意味로써 民族主義的 意味가 表現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고」의 前衛的 理論家들은 「맑스」主義의 「脫神話化」 내지 「脫終末論化」에 앞장을 서므로 이른 바 「맑스」的 「타부」(Tabu Marx)의 除去를 통한 自由로운 「맑스」解析이 強調되고 自然社會主義에 對의 「唯一한 路」은 포기되는 것이다.

東歐社會에 아직도 殘有하는 「스타린」主義的 敎條主義와 制度的 遺制에 對한 東歐 知性들의 抵抗과 아울러 東歐의 青年文化를 잠시 살펴 볼 必要가 있다. 왜냐하면 그 社會의 抵抗的 知性文化의 風土와 青年文化의 內容과는 항상 密接한 關係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東歐 特히 「폴란드」의 16 ~ 24歲의 青少年 年齡集團과 余他的 年齡集團間的 격심한 文化的 격차에 關心을 가질 必要가 있다.

이들 年齡層의 옷차림, 머리스타일, 음악취향, 性行態等으로 代表되는 Black Literature의 內容에 있어 當代 歐美의 Angry Youngman 과 親知性이 깊다고 指摘하고 이들은 「브르조아」의 原規나 規範的 傳統에서도 「맑스」主義 理念이나 實際行態에서도 그들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하며 결국 世界를 否定하는 異議論者로서도 「過去의 이베오 로기」를 標榜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知的 基準이나 文化的 業種의 評價에 別로 關心을 두지 않고 本能에 큰 價值를 부여한다. 그들은 이미 自身과 自身들을 絶望과 無秩序, 無責任으로의 전략케 하는 世界에 對한 數 많은 神話를 놓고 있다.

이들의 立場은 旧來의 혹은 새로운 社會秩序中 어느 것에 內在 되어 있는 가치도 否定하고 이들 중 어느 것을 提高하는 일에도

함께 協力하기를 굳게 거절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疎外化된 青年文化는 東歐社會의 社會的 連續性 (Social Continuity) 의 立場에서 볼 때 一種의 위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形便이다.

東歐 青年文化의 疎外的 性向을 解明하기 위해 以下의 몇 가지 要因을 分析할 必要가 있다.

(1) 이들 젊은이들이 느끼는 家族價值와 그 定向이 公式的 共產主義 「이데오로기」에 의해 強調되는 家族價值 내지 그 定向과 편차가 크다. 이러한 편차에 의해 야기되는 不可避한 緊張은 權力의 專制的 行使, 이의 私的 領域에의 浸透, 家族의 教育機能에 對한 간섭등에 의해 더욱 심화된다. 社會構造內에서 家族役割의 점차적 減少는 思春期로부터 成人期로의 轉化에 있어서 적지 않은 問題를 惹氣시키며 家族外的 機能과 活動에의 適應을 阻害시킨다.

(2) 社會적으로 公認된 目標成就 手段에의 接近에 있어서의 심한 편차는 規範的 無定向性 「Normative Disorganization」을 深化시키고 이는 疎外化를 자극한다.

(3) 社會主義의 共產主義的 價值體系와 個人主義的 價值體系間的 緊張은 青年文化를 葛藤狀況에 投入시킨다. 특히 勞動者의 이름으로 黨的 支配를 公고히 하는 「國家主義」와 個人의 主體的 自由를 갈구하는 青年文化의 批判的 要素間的 相衝이 그것이다.

Peter Veres 는 「헝가리」의 경우를 例로 하여 바단 知性文化
나 青年文化에 限定되지 않은 大衆的 疎外文化를 「無關心」(Indi-
fference) 이란 어휘로 表現하고 이러한 關心의 缺如現象을 虛脫
感의 立場에서 社會主義初期의 「메시아」의 情熱過剩의 後遺症的
精神狀況으로 把握하고 特히 그 無政治的 心理를 重視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東歐의 人間疎外的 精神狀況은 무척 (심각한) 形勢
이며 이에 對한 知識人의 創造的 抵抗意識, 疎外속에서 退去는
「이데오르가」에 執着하는 青年文化, 無關心으로 點綴되는 大衆文化
等은 機能的으로 연관되는 것이다.

第 4 章 北韓社會의 變遷過程과 社會實相

第 1 節 「쏘비에트」式 政權扶植 ('45 ~ '50)

1945年 北韓은 쏘련이 共產化하기 쉬운 여건에 놓여 있었다. 日帝의 36年間の 植民地政策으로 因하여 國內에 組織된 政治團體는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 따라서 쏘련의 共產化政策을 反對할 힘이 弱하였다. 쏘련軍에게는 解放軍이라는 名目下에 北韓은 共產化 하는데 좋은 機會이 부여 되었다. 드디어 1945年 8月 7日 쏘련軍의 第 25軍司令官 「취스차코프」는 10余万명의 쏘련軍을 데리고 北韓에 進駐하였다.

金日成 역시 쏘련軍 軍政司令官 「로마빙코」와 함께 東滿洲에서 「게릴라」活動을 같이 하던 部隊 300余名을 거느리고 北韓에 들어왔다.

數十年 동안 中央亞細亞에 共和國의 名목고에서 植民地經驗을 얻은 쏘련은 北韓에 時急한 共產化를 表面上으로는 強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即 北韓에 進駐한 쏘련 25軍司令官 「취스차코프」는 韓國에 「쏘비에트」秩序를 設定하거나 領土를 얻으려는 目的이 없다고 發表하였다. 東歐에서와 마찬가지로 民族主義者와 共產主義者들間的 聯立政府를 세우도록 하였다. 8月 26日 「취스차코프」는 曹晚植先生과 協議하여 「平安南道人民政治委員會」를 樹立하였다. 曹晚植氏가 委員長이 되고 副委員長에는 玄俊懋(國內

派)과 吳胤善(民族派)이 되었다. 이 委員會도 모든 行政權이 日本道知事로부터 넘겨왔다. 그후 北韓全地域에 行政機構가 必要하기 때문에 朝鮮軍은 北韓 5道行政局이라는 것을 設置하고 初代局長에는 曹晩植氏가 되었다.

8月末頃 平壤에 온 金日成이는 10月中旬까지 전연 나타나지 않고 이면에서 300余名の 부하를 데리고 政治工作을 始作하였다. 秘密히 各道の 実情調査를 實施하여 國內基盤이 全無한 金日成은 自己勢力을 구축하기 始作하였다.

「로마넝코」 軍政司令官의 감시하에 10月 13日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을 創設하였다. 그러나 곧 「北朝鮮共產黨」으로 개칭되었다. 黨이 組織된지 몇달도 안되어 黨首가된 金日成은 1946年 2月 8日, 曹晩植氏가 首班이었던 「北朝鮮 5道行政局」을 廢止하고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를 樹立하였다.

새로운 行政府를 樹立하자마자 金日成은 土地改革과 重要産業의 國有化를 通하여 自己支配體制改化에 박차를 加하였다. 土地改革을 通하여 北韓內的 地主, 인테리, 商人들의 權力과 영향력을 파괴시키고 共產主義者들로 構成된 새로운 支配體制를 構成하였다 뿐만아니라 朝鮮式 經濟原則을 適用하여 重工業을 우선한 兩次 1個年 經濟計劃과 第1次 2개년 經濟計劃(1946 ~ 1949)을 樹立하였다.

UN 감시하에 總選舉를 反對한 金日成은 1948年 9月 9日에 所謂 「朝鮮人民共和國」政府를 樹立하였다. 初代內閣首相은 金日成이 되고 朴憲永은 副首相兼 外相이 되었다.

金日成은 1949年 北勞黨과 南勞黨을 合黨하여 「朝鮮勞動黨」을 設立하여 南勞黨을 支配하게 되었다. 金日成이 委員長이 되고 朴憲永이 副委員長으로 되었다. 勞動黨의 設立은 南勞黨이 北勞黨에 흡수된것을 意味하였고 朴憲永 崩壞의 시초였다.

金日成은 住民들을 組織化하고 傳統的인 家族制度를 破壞시키기 위하여 1947年부터 戶籍制度를 廢止하고 公民証, 制度로 代置시켰었고 男女平等權을 1946年 7. 30 公布하므로써 女性の 脫家庭化의 첫발을 내딛었다. 뿐만아니라 「朝鮮職業總同盟」, 「朝鮮民主女性同盟」, 「朝鮮農業勤勞者同盟」의 前身인 「農民同盟」, 그리고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의 前身인 「民青」등을 組織化하였다.

이렇게 볼때 40年代의 北韓은 東歐圈과는 相異한 基礎에서 「쏘비에트」化를 始作하였다. 即 東歐圈은 共產化素地가 個別的으로 잠재하여 있었지만 「알파」協定에 依拠 東歐諸國의 自決權이 認定 되었고 反蘇感情이 팽배하였으며 資本主義에 對한 經驗(自由, 信仰, 民族主義)과 社會底辺에 基督教文化가 強力하게 醜려 있었으며 特히 西歐와의 地理的으로 接近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다.

이에 反해 北韓은 蘇聯軍이 「解放軍」이라는 美名下에 無條件 占領하였고 軍政實施를 하였다. 여기에 住民의 反蘇意識이나 自體主義에 對한 經驗이 없었다. 그래서 結局 金日成이는 「쏘비에트」式의 體制를 導入하는데 成功하게 되었고 「統一問題는

民族勢力과 反民主勢力과의 鬭爭인 國際政治權力의 一環」¹⁴⁾으로 判斷하여 「當面課題는 共產化 統一을 위한 物質的, 思想的 實力 培養으로서 北韓의 革命基地化가 急先務」¹⁵⁾라고 하였고 對南戰略은 南北協商이나 南北總選을 主張하므로써 우리의 對共戰列을 分裂시키기 위한 心理戰에 局限하였다.

그런데 金日成은 몇가지의 情勢誤判으로 6·25戰爭을 挑發하였다. 첫째 1950年 1月 「韓國은 美國의 防衛圈밖에 든다」고 하는 當時 美國의 國務長官 「에치슨」의 聲明과 둘째 1950. 1. <中蘇軍事同盟締結> 세째 柏林에서의 緊張高調에 따른 <東西冷戰의 極大化> 네째 金日成이 南侵하면 南韓內 人民들이 武裝蜂起할것이라고 하는 朴憲永等 南勞黨系의 助言等에 基因하였으나 3年余에 걸친 韓國動亂은 金日成의 敗北로 끝나고 말았다.

第 2 節 金日成支配體制確立 (1953.~1960)

金日成支配體制的 形成過程에서 轉換點이 된것은 韓國戰爭이었다. 100 萬에 가까운 中共軍의 韓國介入으로 金日成은 蘇聯의 支配에서 徐々히 벗어나 許可面를 위시한 蘇聯派를 肅清하고 獨裁者로 登場하게 된다.

韓國動亂이 끝나자마자 李承燁, 李康國, 林和等 10 余名의 南勞黨系 要員들이 6.25 敗戰의 責任으로 肅清當하였고 朴憲永은

註 14) 第 2 次 黨大會, 金日成報告, 1943. 3.

註 15) 共產黨 5 道責任者熱誠者大會, 1945. 10. 10

2年後에 死刑을 시키므로서 南勞黨系를 대거 整理하였다.

그리고 南勞黨系를 肅清하는 同時에 金日成은 自己直系를 要職에 配置하므로서 獨裁體制를 強化하였다.

더욱이 1956년에는 崔昌益(연안파), 朴昌玉(蘇聯派), 金두봉 등을 金日成이가 蘇聯에 원조항각을 떠난사이 反金日成運動을 하였다는 罪目(八月宗派事件)으로 이들을 肅清하므로써 金日成支配體制는 完遂되었다. 뿐만아니라 金日成은 1956年の 「스타린」 格下運動이 金日成 格下運動으로 과급되는것을 防止하고 同時에 中蘇理念紛爭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특히 金日成이의 支配體制를 正統化(Legitimacy)를 操作하기 위하여 이른바 「主体思想」을 提起¹⁶⁾하였고, 對蘇일변도 外交路線을 변경, 中共에 轉向하기 始作하였다.

解放當時 國內基盤이 전혀 없던 金日成이가 蘇聯의 支援이 없이는 北韓의 獨裁者로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또한—中共軍의 駐屯(1950~1958年)이 없이 金日成은 蘇聯의 支配에서 벗어나 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金日成이 全体主義 獨裁者로 登場하게 된것은 그나름대로 共產體制內에서 戰略戰術 및 肅清에 能하다는 것을 意味한다.

註 16) 3次黨大會, 思想事業에서 教條主義와 形式主義를 退治하고 主体를 確立할때 對하여 1950.4.

이 期間에 經濟面에서 北韓은 蘇聯과 中共으로 부터 援助를 獲得하여 戰後復旧 3 個年 人民經濟計劃 ('54 ~ '56)을 採択하여 農工業의 生産水準을 1949年 水準으로 復旧發展 시켰으며 第 1/2 次 産業의 生産増大를 推進하였다. 그리고 1957年 1月부터 ~ 1960年末까지는 1次 5 個年 人民經濟計劃을 採択하여 重工業優先政策으로 社會主義 工業化를 推進하였다. 따라서 第二次 産業中 重工業生産에 重點을 두기 始作하였다.

同時에 北傀는 農業의 協同化, 商工業의 社會主義的 改造(抹殺)을 完了했다고하여 社會主義 工業化의 基礎確立을 宣言했다. 17) 이때 北傀는 <資本, 技術, 勞動力의 不足을 메꾸기 위하여> <在日僑胞 北送을 始作>하모로써 海外勞動力을 吸收하기 始作하였고 産兒 奨勵를 實施하였다. 뿐만아니라 「千里馬運動」과 같은 集團動員政策을 通하여 住民들의 勞動力을 強制的으로 動員하였다. 女性 勞動力 역시 1953年 26.2%에서 1960年 32.7%로써 女性 勞動의 參加를 義務化 시킨것을 엿볼수 있다.

社會文化的 側面에서도 北傀는 1958年부터 1961년까지 党的 「集中指導事業」과 「5戶担当制」를 實施하여 <住民統制와 <反 金日成勢力을 弱화시키었다.

宗教의 自由 역시 憲法上 保障하고 있지만 宗教는 阿片으로 着做해서 「밖쓰」 「레닌」主義 및 金日成 主体思想, 以外の 信

註17) 黨事業 總和報告, 1958.

仰은 容認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一切의 寺刹이나 教會等은 撤廢 되어 있고 宗教人은 反革命的 不純分子로 看做하여 彈壓 하였다. 그 理由는 宗教人은 反共鬪爭意識이 強하고 越南歸順 家族이 多數이며 宗教는 金日成 獨裁에 強한 反抗意識을 賦與 한다 하는것이 그 理由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宗教彈壓에 對한 住民들의 反抗運動은 1960年代에 찬송가 事件, 天主教 十字架事件等이 있었다.

1956年 4月에는 物質的 浪費와 勞動時間을 節約한다는 名分으로 冠婚喪祭 簡素化를 實施할것을 決議하였다. 18)

反體制 運動으로서는 1959年 開城 咸興等地에서 金日成獨裁反對 吡拉事件과 勞動者의 「싸보타지」, 그리고 農産物作業 妨害事件等이 있었다.

金日成은 靑少年 思想敎化와 偶像化敎育을 強化하기 위해서 또 1年에 13週乃至 16週의 強制勞動을 學生들이 義務적으로 實施할것을 內容으로 하는 學校 敎育體系를 改編하였다. 19) 即

「學生社會義務勞動制」라 불리는 이 強制勞動을 畢하고 또 北韓全住民의 21%에 該當하는 核心階層에 所屬된자만이 大學에 進學할 수 있는 自格을 賦與했다. 뿐만아니라 體育의 大衆化, 職場別 組織化를 名分으로 強制勞動을 効率化하기 위하여

註 18) 勞動黨 3次 黨大會, 1956. 4.

註 19) 北傀內閣決定 18號, 1959.

「群衆体育事業」은 1958년에 擴大하였다. 20)

1956년부터는 無料치료제를 實施한다고해서 洋医学보다는 東洋医学에 置重, 民間療法을 奨勵하였다.

北韓에서의 住宅問題는 우리의 想像以上으로 深刻하다. 그것은 6·25 敗戰으로 因하여 住民의 住宅이 거의 大部分 廢虛化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北傀는 住宅을 急造한 結果 階層別에 따라서 入住토록하고 있다. 그 具體的 內容을 보면 1号 住宅은 방 1간, 부엌 半間으로서 勞動者 및 事務員이 使用하고, 2号 住宅은 방 1간, 부엌 1間으로서 課長級, 市郡의 部長級이 使用한다. 3号住宅은 방 2간, 부엌 1간, 그리고 倉庫가 있는데 이것은 企業체의 部長, 學校々長, 道機關의 副部長級이 使用한다. 4号住宅은 방 2간, 마루 1간, 倉庫, 沐浴湯, 便所가 달려있는데 이는 道機關의 部長級, 內閣의 局長級, 功勳藝術家가 使用한다. 特別住宅은 獨立住宅으로서 庭園이 달려있지만 堡地와 建坪수, 室內裝飾은 階級에 따라 差異가 지는데 이는 副總理 및 長次官級이 使用한다 南北 對話中 우리의 生活相을 認識한 北韓은 最近 水洗式이 있는 高級住宅을 많이 建築中에 있다고 한다.

50年代의 北韓은 東歐共産圏과는 相異한 方向으로 體制가 發展되었다. 即 東歐는 政治面에서 블레 스탈린 死後 東歐 역시 1人 獨裁體制가 退進되었고 經濟面에서도 派쇄적 經濟體制가 東

註 20) 北傀內閣決定 14号, 1958.

歐諸國의 地域的 特性에 適用한 自律的 經濟計劃을 摸索하였다. 社会文化面에서도 스타린格下運動에 依한 「박시즘」의 非스타린 策 解析에 依한 Neo-Marxism 運動이 일어났고 「共産党宣言」에서 「個人의 自由로운 發展이 万人的 自由로운 發展의 前提」임을 말하였으나 共産主義 目標를 追求하는 過程에서 人間疎外는 더욱 深化되므로서 「후메니즘」의 社会主義運動이 強力하게 抬頭되어 全面的인 人間解放을 절규하게 되었다.

그러나 北韓은 政治, 經濟, 社会 諸面에서 「스타린」主義化 되었다.

政治面에서 볼때 政治指導體系는 諒聯式 「中央集權的 支配樣式」이 形成되어 관료제의 統制力이 深化되었고 또 蘇聯式 國家, 党 官僚體制」로 確立되는 政治體틀 確立하므로서 一方的 命令支配的 社会統合樣式이 되었을 뿐만아니라 金日成自身은 「스타린」式 「카리스마」의 一人支配體系를 確立하였다.

經濟面에서는 農業, 消費財産業은 無視된 重工業一辺倒의 政策 수행으로 社会主義的 經濟體系의 基礎確立을 摸索하였다.

社会文化面에서도 中共의 对宗教宥和路線과는 대조적으로 1920 ~ 1930 年에서 보는바와 같은 蘇聯의 「불세비키」式 宗教彈壓을 強行하였다. 또한 <教育制度>를 改編하여 中共의 1958 年度의 「大躍進運動」과 類似한 「集團主義的 競争運動」을 展開하여 住民의 勞働搾取에 熱中하였다. 靑少年의 思想教化 및 勞動力의 義務的 動員 역시 「蘇聯」式 KOMSOMOL (Soviet Com-

unist youth League)의 方法을 援用한 것으로 볼수 있다.
對南戰略面에서는 戰後 戰災復旧와 人民經濟計劃에 依한 社會主義革命역량의 蓄力期로 活用하고 對南革命輸出의 基地化 基盤造成에 腐心하여 積極的 對南戰略을 展開하지 아니하였다.

第 3 節 Symbol 操作, 大動員政策을 통한

社會統合試圖 (1961 ~ 1969)

60年代에 들어서서 北傀는 제일 먼저 「朝蘇軍事同盟」, 「朝中軍事同盟」을 1961. 7 締結하였다. 그러나 蘇聯의 經濟援助가 中斷되자 北傀는 「自力更生原則」을 宣言하고 修正主義와 形式主義를 退治한다고하여 「自主路線」를 宣言하므로써 「唯一思想」의 發芽가 始作되었다. 21)

1962年 12月에는 武力強硬政策인 四大軍事路線 即 全國土의 要塞化, 全人民의 武裝化, 全軍의 幹部化, 裝備의 現代化를 採択하여 全住民을 軍事動員化 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北傀가 「큐바」 事件으로 因한 蘇聯의 향북주의적 態度에 衝擊을 받고 또 1961年 9月 4次 黨大會에서 採択한 平和統一 構想을 暴力革命戰術로 轉換한것을 意味한다.

그리고 1961年 11월에 宣言한 「自主路線」에 따라 發芽되었

註 21) 1961. 11. 4期 2次 擴大總會

던 「唯一思想」이 1966年 8月 勞動新聞에 依하여 그 體系
가 確立 強化되었다. 그것은 蘇聯의 平和共存論의 不可避,
그리고 월남전의 「에스칼레숀」과 韓國의 經濟成長, 政治安定에
대한 対応策으로 考慮된다.

對南戰略面에서도 暴力革命鬪爭戰術을 採択(註22)하였는데
이에 政策論爭이 격심하였다. 即 先經濟建設主唱者인 朴春喆,
金창만, 李孝淳 등이 除去되고 武力強硬派인 崔賢(人民武力部 部
長)과 吳振宇(人民軍 總參謀長)가 重用되므로써 「게릴라」戰
略에 依한 統一을 試圖하였다. 23)

이러한 對南暴力革命鬪爭戰術의 좋은 例는 1960年代 후반에
있었던 「1:2」事態」 「프예블로」号 事件, 三陟·蔚珍武裝間
諜事件, 그리고 KAL機 拉北事件을 들수 있다.

經濟面에서는 1961년부터 人民經濟 7個年計劃을 樹立하여
鐵綱, 非鐵金屬, 化學等, 重工業 優先의 軍需産業 위주의 計劃을
세웠고 農工間의 均衡的인 發展을 圖謀한다해서 工業에 있어서
生産工程을 機械化하고 半自動화를 自動화할것을 推進하였다. 殷業에 있어
서도 四化 即 機械化, 火利化, 電氣化, 化學化를 推進하였다.

그러나 이 7個年計劃은 軍需産業 위주의 重工業편중, 또 그로
인한 産業別 不均衡과 技術, 資本, 勞動力 不足으로 失敗하였다.

註22) 北德 第2次 代表者會議 1966.10.

註23) 北德 4期 18次 全員會議 1968.11.

그래서 1958년부터 3個年을 연장하였다.

이時期에 特徵적인 것은 農業에 있어서 「靑山里 方法」(1960. 2.) 과 工業에 있어서 「大安事業體系」(1961. 12)가 나왔다 는 것이다.

「靑山里方法」이라는 것은 「靑山里敎示」라고도 하는데 이는 北傀가 農業生産의 落後性을 개탄하여 金日成이 直接 平南江西郡 靑山里에 있는 靑山里 農業協同農場을 15日間 소위 現地 指導한데서 基因한다. 여기에서 金日成은 黨 및 行政일꾼들의 指導方法이 그릇됨을 지적하고 책상에 앉아서 호령하는 官僚式 作風을 버리고 現地에 接近하여 指導하라는 이른바 金日成의 指導事項을 말한다. 卽 協同農場에서 無原則한 平均主義의 修正作業班의 改編, 勞力의 最大限動員, 作物配置의 變動, 勞力基準量의 再檢討 등이 그것이다. 「勞動黨 時代는 60이 回甲이 아니라 90이 回甲이다」라는 口號가 이 靑山里 指示에 의해 제창되었고 60才 以上の 老人들도 勞動에 強制로 動員시키는 美名을 만들어 놓았다. 靑山里指示를 實行하는 精神的 姿勢를 이른바 金日成의 靑山里精神에 根拠해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으며 이 精神에 입각하여 各處에서 「革新運動」을 일으키도록 強行시키고 있는 것이 卽 靑山里 方法이다.

「大安事業體系」라는 것은 勞動者들에게 보다 強度가 높은 勞力 動員을 強要하기 위하여 金日成이 江西郡에 所在하는 北韓地域에서 굴지의 工場인 大安電氣工場에 事業體系를 指導한다고 나간

金日成의 現地 指導體系를 말한다. 당초 大安事業體系는 일종의 黨事業이지 전기사업일 수는 없는데 金日成은 이 現地指導에서 工場全體의 主人이 工場支配人이 있던 것을 黨委員長으로 바꾸어 놓았으므로 結局 大安事業體系는 일개 勞動者에게 까지도 直接的인 影響을 받게 하였다. 金日成은 이 指導에서

(1) 從前의 個人的 事業指導에서 黨委員會의 集體的인 指導로 轉換할것

(2) 上部는 下部를 實質的으로 도와 줄것

(3) 勞動者들의 自覺성과 創造力을 加一層 提高시킬 것

(4) 生産者 即 勞動者들이 直接 管轄에 參與할 것 등을 指示한 것이다. 大安事業體系란 바로 이 때까지 金日成 指示를 받아 이를 모든 黨과 生産職場에 適用 運營하는 수단인 것이다.

社会文化面에서는 住民統制를 組織化하고 思想教育을 더욱 強化하였다 即 1962年의 「住民登錄事業」을 1966年의 「住民再登錄事業」으로 더욱 擴大하여 北韓 社会安定省에서 住民의 性分을 分類한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抗日武装 闘爭者와 그家族, 戰歿遺子女, 黨에의 忠誠心이 強한 人들을 核心階層(全住民의 21%)이라해서 이들에게는 各種社会的 特惠와 教育의 機會(大學進學)그리고 政治職이나 行政職에 充員될 수 있는 機會를 享有하도록 하며 一般勞動者나 農民은 基本階級(28%)이라하여 이들은 政治職이나 行政職에의 充員은 不可能하다 허나 第2世의 境遇 社会的 上向的 移動은 可能하다 過去의 地主, 資本家, 宗教人과 그

家族, 日帝時 官公利, 越南家族, 귀환포로, 전과자들은 복잡한 群衆 (51%) 이라 해서 이들을 다시 反革命的要素集團이라 재분류하여 포섭대상자, 감시대상자, 제재대상자로 나누어 감시를 개음리 하지 않고 있다. 포섭대상자의 第2世의 경우 同調的 政治行動을 통한 忠誠心이 다짐되는 경우 專門職, 技術職으로의 上向的 移動이 可能하나 政策決定 階層에의 부상은 不可能하다.

住民들의 思想教育을 強化하기 위해서 새로히 住民들에게는 每日 2時間式 幹部들에게는 2~6個月間的 政治學習을 實施하도록 하였고 住民들을 組織化 하기 위해서 勞農赤衛隊 및 붉은青年군 위대를 組織하여 軍事動員體系로 만들었다.

各種外廓社會團體의 機能을 強化하기 위하여 「朝鮮農業動勞者同盟」을 組織(盟員 260 萬名)하여²⁴⁾ 社會主義 農村建設 促進 및 思想教養事業을 強化하고 1945年에 組織하였던 「民靑」을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으로 改編²⁵⁾하여 270 余萬名에 이르는 盟員들에게 「이데오로기」의 政治組織으로 訓練하여 戰鬥力 設備 隊, 靑少年의 社會主義化와 金日成 唯一思想體系로 武裝하고 있다.

言語에 있어서도 소위 「革命的 言語」²⁶⁾의 操作을 通하여 統治의 手段으로 活用하였다. 政治的인 言語操作을 보면 「民族

註 24) 北傀 4期9次全員會議, 1964.6.

註 25) 北傀 民靑大會, 1964.5.

註 26) 金日成의 言語學者와의 對話, 1964.6.

의英雄」, 「어버이 首領님」과 같은 單語를 操作하여 金日成 唯一思想 및 偶像化 確立에 寄与토록했고 「基本出身」, 「党的 思想体系」와 같은 言語操作으로 共產主義 思想으로 武装하는데 使用하였다. 經濟的 操作으로서는 「千里馬旗手」, 「셋벌따기 運動」 또는 「党的 決定을 심장으로 받들고 增産鬪爭에 蹶起 하였다」와 같은 用語와 表現으로서 人間을 노예化하고 生産手 段化하는데 서슴치 않았다. 文化思想的인 用語의 操作으로서 言語에 있어서 소위 主体性を 強調한다하여 「센터링」을 「中 央으로 격어차기」 라디오 「프로그램」의 「遠洋漁船의 時間」 을 「먼바다 고기잡이배 일꾼들의 「時間」으로 풀어쓰고 있으 며, 復古主義를 排擊한다 하여 古語漢字인 「春府文」 「內子」 等を 廢止하였고 社會主義 群衆文化를 確立한다 하여 「國防体 育」, 「勞動体育」 「南朝鮮달리기 運動」等の 用語를 操作하였 다. 「퍼스나리티」操作을 위해서 「滅菌作用」을 「균강그리 죽이기 作戰에 떨쳐 나섰다」, 「옥수수 秋收」를 「강냉이 가 을에 떨쳐 나섰다」, 「원수의 머리를 돌로 까부스라」等等 으 로 表現토록하여 人間의 性格을 戰鬪的이고 好戰的인 性格으로 만들어 놓았다.

女性の 脫家庭化도 이 60年代에 더욱 深化시키었다. 北韓에 있어서 女性人口는 50.6 %로서 女子가 170万名 程度 많다. 北傀憲法 62條를 보면 「女子는 男子와 똑같은 社會的 地位와 權利를 가진다」라고 하여 「女性の 家庭事로부터 解放」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러가지 조치와 教育過程을 實施하고 있다. 即 戶籍制度를 廢止하여 族譜를 抹殺시키고 65年 現在 23,500 余個의 託兒所(74年 37,000 個)와 15,200 個의 유치원(74年 24,000 個), 그리고 各居住地域마다 밥工場, 副食品工場, 洗濯修繕工場, 共同食堂等을 經營하여 集團的 生活樣式을 形成해 놓았다. 勞動者와 事務員中 女性의 比率을 보면 1956年에 19.9%, 1964年에 37.3%, 71年에 53.7%²⁷⁾로 增加한것으로 보아도, 女性의 脫 家庭化가 무엇인가를 쉬 알수 있다.

幼兒教育을 보면 產母에게 出産前後 77日間の 休養을 주는대 産後 40余日後에는 出動을 해야 한다. 後유증으로 인하여 出動이 不可能할時는 「人民班」에서 組織한 家內作業班에서 勞動을 해야 하며 生後 40日後에는 嬰兒를 託兒所(1日 託兒所, 週託兒所, 月託兒所)에 맡기도록 되어 있다. 幼兒期의 人間은 完全히 他人에 依存하는 存在로서 性格形成이 學習面에서 그릇 늘어나 주는 사람에게서 絶對的 影響力을 받는다는것은 주의의 事實이다. 따라서 北韓의 幼稚園, 託兒所 運營은 유아기부터 人間을 集團主義 生活에 適應시키고, 어머니의 勞動力을 最大限 擷取하여 父母와 子息間의 情을 金日成과 共產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代 置시키고자 하는데 目的이 있다.

이렇게 볼때 60年代의 北韓은 동기의 東歐와 상이한 양상으로

註 27) 統一朝鮮 年鑑, 65年~72年

發展되었다.

即 60年代 東歐는 66年 4月 「유고」와 「루마니아」가 独自路線을 宣言한것과 같이 制度的 多元主義에 입각한 民族社會主義 路線을 再確認하였다 뿐만아니라 1968年 「체코」에서 人道的 社會主義를 표방한 共産黨 行動강령에서 보는 것처럼 政治, 經濟, 軍事, 外交面에서 独自性이 增加하였고 特히 64年을 前後해서 東歐共産諸國은 經濟改革을 착수하였다. 即 「코메콘」에 依存하던 經濟에서 脫皮하여 東西間의 貿易을 增大시키었고 西歐의 資本과 技術을 導入하여 合理的 企業經營제도를 導入하고 自由價格制度 및 市場經濟 制度를 導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北韓은 「主体思想」이라는 「섬불」을 操作하여 別種의 社會主義體系를 確立하였다. 即 政治에서 「自主」라 하여 中蘇紛争에 말려들지 않고 共産國 分裂현상에 대처하였고 經濟에서 「自立」이라 하여 패쇄적 自立經濟構築한다. 하여 海外 資本과 技術의 導入을 회피하였다. 또 國防에서 「自衛」라 하여 四大軍事路線을 採択하여 對南軍事 強硬政策을 固守하여 暴力에 依한 對南革命을 試圖하였다. 그래서 小「스타린」的인 一人獨裁體制를 強化하였다.

經濟面에서는 勞動集約的 生産과 技術 낙후로 經濟成長이 限界性에 達하였고 社會面에서는 勞動力 極大化와 住民감시체제를 確立하여 金日成 偶像化에 한층 광분하였다.

第 4 節 新狀況과의 마찰기 (1970 ~)

70年代의 國際的 解氷무드에 對處하여 金日成은 權力構造 改編과 政策路線에 修正을 加하였다.

北韓의 權力의 源泉인 党中央委員會序列을 變動을 보면 機械工業相을 歷任한바 있는 李根模가 政治委員會 候補委員에서 正委員으로 昇進했고 國家計劃委員會 委員長을 지낸바 있는 崔戡羽가 中央委 序列 20位에서 15位로 昇進하였다. 이와같은 經濟通들의 進出은 不進한 經濟計劃 特히 重工業等の 機械工業에 拍車를 加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教育文化相과 勞動黨 宣傳煽動部長을 지낸바 있는 鄭準基가 中央委 序列 64位에서 16位로 勞動黨 平壤市黨 委員長인 姜成山이 61位에서 17位로 각각 昇進하였다.

이와같은 思想教育通의 進出은 南北對話로 因한 修正主義 및 自由化 浸透를 防止하기 위한 思想革命과 文化革命을 強力히 推進하기 위한 것이다.

副總理級 역시 從前의 朴成哲, 崔戡羽, 南日外에 새로히 勞動黨 組織部長이었던 金英柱, 國家計劃委員會 委員長인 洪成萬, 鄭準基, 李根模와 外交部長인 許談等 「테크노크라트」로 強化하였다.

이 以外에도 政務院 各료급을 新進 「엘리트」로 대폭 強化하였다. 例컨데 國家計劃委員會 委員長이 洪成萬, 機械工業委員會 委員長에 桂亨淳, 農業委員會 委員長에 徐관희, 人民奉仕委員會 委員長에 林亨九等을 登用하였다.

그리고 1972年 12月 最高人民委員會에서 新憲法을 採択하고

政治機構를 改編하였는데 從前에 없던 主席制, 中央人民委員會를 新設하고 內閣을 政務院으로 改稱하였다. 이것은 党優位の 行政統制를 公式化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党政府要職에 金日成은 自己의 친척을 임명하는 족벌정치를 더욱 強化하고 있다. 即 外祖父인 康良煜을 副主席에, 親弟인 金英柱를 副總理에, 처조카인 楊亨燮을 思想担当 秘書에, 四寸姉夫人 許談을 副總理兼 外交部長에, 親子인 金正一을 敬호 責任者에, 妻인 金聖愛를 「女盟」委員長에 그리고 사촌누이인 金正淑을 「社勞青」 副委員長에 任命하여 權力安定을 도모하고 있다.

政策路線變更을 보면 60年代의 對南戰略인 「民族民主主義革命」戰略을 1970年 11月 第5次 党大會에서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을 취할것을 宣言하였다. 即 勞動者, 農民, 學生, 一部知識人 및 小資本家와 統一戰線을 形成해서 現政府를 전복시킨다는 戰略 밑에 南北對話를 通하여 平和的 統一의 雰圍氣를 造成하여 對南革命을 試圖하려 했지만 結局 이런 戰略上的 차질을 알게된 金日成은 8.28 宣言으로서 南北對話를 기피한채 연방제, 大民族會議, 平和協定締結等을 제의 하므로써 政治心理戰을 強化하고 있다.

對外政策面에서도 韓半島의 正統性 確保를 위한 外交活動을 強化하고 있다. 即 1973年에 UN에 「음서버」를 派遣하고 WHO에 加入함은 勿論 阿亞地域에서의 中立國外交를 強化하고

있으며 美國의 記者 및 學者等 與論善導層은 入北시키고 對日貿易을 增大시키는等 對西方 接觸을 努力하고 있다.

經濟政策에 있어서도 그方向을 修正하고 있는데, 1971年부터 始作된 6個年 經濟計劃을 보면 重工業 優先하에 消費財産業을 育成²⁸⁾한다고 하였다. 即 從前의 석탄「에너지」工業體系를 전력 석유「에너지」工業化하고 의복, 봉제품, 가공식품等 消費財 産業을 發展시킬것은 고려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海外資本 및 技術導入 推進²⁹⁾도 아울러 宣稱하고 있다.

이것은 重工業을 優先한 軍需産業위주의 經濟政策때문에 産業間에 不均衡이 深化되고 資本不足과 勞動集約的 生産體系가 限界點에 이르렀음은 물론 技術의 낙후성, 官僚主義的 非創意性, 生産의 非效率化와 住民들에게 物質的 資금을 도의시한 價格機構의 矛盾에서 비롯되었다.

70年代에 들어서서 金日成은 偶像化를 더욱 促進시키고 있다. 金日成 革命略歷 100 번 읽고 쓰기運動, 붉은靑年근위대를 통한 反革命分者 索出 指示, 金日成賞訓계정(生日記念), 全民, 全軍, 全黨의 政治教養事業等 社會教育은 勿論 學校 教育體系를 改編³⁰⁾

10年制 高·中 義務教育을 實施한다 하였다 그런데 이 10年制

註 28) 北傀 第 5 次黨大會, 1970.

註 29) 北傀 中央委員會 3次會議, 1971. 11.

註 30) 北傀 中央委員會 4次會議, 1972. 7.

高中義務教育이라 하는것은 人民學校 4年, 高等中學校에서 中等班 4年, 高等班 2年을 말한다. 教科內容은 「맑스·레닌」主義等 思想 政治科目과 捏造된 金日成革命活動과 金日成革命路線 그리고 왜곡된 國語·歷史과목에 置重하고 있다. 大學校는 130余個가 있지만 金日成 綜合大學을 除外하고는 거의다 水利大學, 과일(果實)大學, 運輸大學, 工場大學等으로 構成되어 있다. 四年大學境遇 一年에 5,300~5,600余時間 教育時間中 政治科目 1,050, 軍事學 1,200, 專攻 3,150~3,350余時間으로 되어 있다. 大學生活은 大學을 軍隊體制로 運營하기 위해서 原則적으로 寄宿舍生活을 제도화하고 있다. 男女學生은 義務적으로 勞農赤衛隊員이며 女大生은 看護學이 필수과목이며 卒業과 同時에 看護將校資格을 獲得한다.

10年制 義務教育이라하는 것은 生産手段의 社會化, 社會主義的인 分配方式이라고 하는 社會主義國家에서 事實上 學父母에게 子女를 教育시킬수 있는 財政的能力을 源泉적으로 수탈하고 있기 때문에 目名上 義務教育으로 되어 있을뿐이다.

住民들의 감시體制를 強化하기 위해서도 全住民을 組織化하고 있다. 黨員 160萬, 職盟 220萬, 社勞靑 270萬, 農勤盟 260萬, 女盟 250萬, 少年團 250萬名과 軍組織으로서 正規軍 46萬, 勞農赤衛隊 140萬, 붉은靑年近衛隊 70萬名等으로서 北韓全住民은 2重 3重으로 속박하여 감시와 統制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住民의 職業構成은 73年 現在 勞動者 46.5%, 農民 35.3%, 事務員 18.8%인데 63年과 比較할때 農民은 7.5%가 減少

한 反面 勞働者와 事務員은 各各 6.4%, 3.7%가 增加하였다.
이것은 北傀가 工業化를 推進한 結果로 생각된다. 尙우수준은
事務員 > 勞働者 > 農民으로서 勞働者의 平均勞賃은 92 圓 (約 37\$),
部長級은 303 ~ 355 圓 (約 120\$) 程度이다.

第 5 節 小 結 論

北韓社會의 變遷 과정을 위해서 본바와 같이 (1)「쏘비에트」式
政權扶植期 (1945 ~ 1950), (2)金日成支配體制 確立期 (1953 ~
1960), (3)「심물」操作 - 大動員政策을 통한 社會統合試圖期 (1967
~ 1969), (4) 新狀況과의 扞찰기 (1970 ~)로 나누어 現在의
北韓實相을 攄聯, 東歐, 中共과 比較하여 概觀하였다. 이러한 北韓
의 社會는 東歐共產諸國과 攄 相異함을 곧 發見할 수 있다.
即 東歐는 1953年 「스타린」死後 黨의 實踐的 意志가 모든
眞理의 基準이라는 이론바 「黨派性理論」이 崩壞되고 「밤시즘」
의 非「스타린」的 解析 即 「네오·밤시즘」運動이 活潑하게 進
行되고 經濟政策에 있어서도 各地域의 特殊性에 알맞는 地域經
濟政策의 實施로 經濟의 自立路線을 追究하여 經濟에 있어서의
開放化를 實施하므로써 資本主義的 經濟要素 에 攄 部分的 市場
制度의 부활과 「콜호즈」集團農場의 私經營的 要素가 增大하여
70年代에 더욱 擴大되는 傾向에 있음은 이미 살펴 본바와 같다
뿐만아니라 共產主義的 目標를 追究하는 過程에서 人間疎外化가
深化되어 「휴메니즘」的 社會主義運動이 擴大되어 全面的 人間

절규가 일어났다.

이에 反해 北韓은 朝鮮式 政治制度를 無條件 導入하여 「主体思想」이라는 「심볼」 操作을 通하여 金日成一人 支配体制를 完全히 구축하고 黨統制를 強化시키었다. 權力構造에 있어서도 「Expert」 型이 어느程度 增加되었지만 如前히 「빨치산」계열의 「Red」 派가 權力的 上位서열에 부상하고 있으며, 武力強硬政策 역시 固守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住民의 「同意形成」을 획득하고 社會統合을 試圖하기 위해서 消費財産業을 育成하여 住民의 文化生活向上을 圖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勞動力을 極大化하고 住民들의 감식체제를 確立하기 위해서 各種의 集團運動과 外廓社會團體의 機能을 더욱 強化하고 家庭教育, 學校教育, 社會教育等 모든 「채널」을 通하여 宣傳煽動을 反復하므로써 金日成 偶像化를 促進하고 있으며 集團主義의 好戰的 性格을 形成하여 共產主義的 人間型을 구조하므로써 「휴머니즘」의 社會運動의 萌芽를 培養하고 있다.

第 5 章 北韓 社會의 變動 展望

第 1 節 統治 名分 面

먼저 統治 名分의 次元에서 그 變化 要因을 찾아보면 과연 소위 「金日成 唯一 思想 體系」의 敎條的 硬直性이 그 當爲性을 維持할 것인가의 問題와 金日成이 그 統治 名分으로 내세우는 「主體性 論理」가 이대로 堅持될 것인가의 問題로 大別할 수 있다.

첫 問題인 「金日成 唯一 思想」의 硬直성은 現在 Dilema 에 빠지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요사이 北韓이 追求하고 있는 對中立國, 對西方 接近 努力은 現實的 次元에서 孤立化를 脫皮하려는 政策 路線으로 把握된다. 現實的 次元에서 어느 정도의 修正主義的 政策 路線으로의 轉換은 그들의 反修正主義的 統治 名分과는 相互 矛盾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統治 名分과 現實的 政治 行態와의 相互 乖離는 그들의 目標 文化로서 革命的 「이데오로기」가 現實 適應 能力을 喪失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名分의 當爲性이 喪失될 것이 뻔하다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現在 進行되고 있는 緊張 緩化로 向한 國際 秩序의 改竊 過程에서 北韓의 好戰的 統治 名分은 中共과 蘇聯으로 부터도 非難과 그 「統治 이데오로기」의 一部 緩和를 促求받을 것이다.

다음 金日成이 그의 存立 名分으로 내세우는 「主體性 論理」는 계속 그 妥當性이 維持될 것인가 이에 對한 說明은 東歐에서 일어나고 있는 「民族 社會主義」 傾向과 「韓國」의 民族 主體 概念과 比較 考察하므로써 解明이 될 것이라고 본다. 東歐 圈에서 일고있는 民族主

義路線은 蘇聯으로 부터의 지나친 영향력을 沮止시키고 自國의 利益을 위한 순수한 民族的 意志의 表現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와 反하여 北韓이 主張하고 있는 主体의 概念은 中蘇로 부터의 영향력배제를 통한 主体의 擁護라는 次元보다는 現實적으로 金日成을 위요한 統治權力の 維持와 住民으로 부터의 自己体制維持를 위한 同意形成의 手段的 次元에 立脚하여 抬頭되었다는데 差異點이 있다고 본다. 「Marxism」에서는 本來 民族主体의 擁護는 「푸로레타리아 國際主義」路線으로 拒否되고 있다는 事實과도 相互 矛盾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北韓이 主張하고 있는 主体性論理의 政治 權力 維持를 위하는 手段的次元에의 帰屬性 그리고 그들이 統治名分으로 내세우는 「푸로레타리아 國際主義」와의 相互 矛盾性으로 다음과 같은 事態到來로 그 當爲性이 喪失될 것이다. 즉 韓國의 民族主体概念의 純粹性이 北韓을 壓到하여 北韓知識人이 그 虛構性을 認識하게 되고 金日成을 위요한 빨치산出身의 權力엘리트가 점차 老衰現象으로 「Elite change」가 불가피함에 따라 「主体性, 論理의 妥當性이 瓦解될것이 뻔하다고 본다.

그러나 短期的 次元에서 展望할때에 現在의 自己身保存慾望(金日成의 權力維持意志)으로 金日成唯一思想体系는 더욱 그 硬直性을 強化시킬 것이다.

長期的으로는 그 統治名分の 矛盾과 現實과의 葛藤·乖離增加로 因하여 當爲性이 喪失되고 이의 空白을 메꾸기 위하여 그 硬直性을 緩和시킬 것이다.

第 2 節 權力構造面

權力構造面の變動要因은 現在の 統治 Elite가 老衰하여 世代交替가 不可避하다는 事實과 점차 Expert 型的 課業 Elite들이 浮上하고 있다는 現象이다.

世代交替問題에 있어서 党政治委員會委員 18名中 60代以上이 10名, 50代以下 8名으로 과반수이상인 老令期에 廻하여 Elite change가 不可避하다는 事實이다.

다음 Expert型 浮上問題는 政治委員에 있어 李根模, 崔載羽, 鄭準基, 姜成山等 非黨出身들이 進出한 點과 政務院 構成員中 新人專門家出身 Elite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 點이다. 이로써 軍部出身의 強硬保守派와 專門家出身穩健派間의 葛藤과 政策對決이 일어 날 것이므로, 이로써 體制變化의 契機가 마련될 것이다.

이를 短期的 眼目에서 본다면 軍部 및 黨出身의 現權力 Elite가 優勢하여 專門家類型的 進出은 어느 限度에서 制限을 받고 있다. 그러나 長期的으로는 專門家出身이 量的으로 優勢하게 되어 現實主義的 穩健政策이 抬頭될 可能性이 많다고 볼 수 있다.

第 3 節 經濟面

요사히 經濟分野에서의 變化要因은 自立經濟原則의 一部修正으로 開放化經濟政策에로의 現實的轉換徵候와 産業構造의 變化가 進行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첫째 分化要因은 다음 事實에서 찾아 볼 수 있다. 現在 北韓의 工業施設은 落後하였고 技術, 資本의 限界露呈으로 自立原則을 修正, 西方으로의 接近을 摸索하고 있다. 즉 對蘇-辺倒의 貿易構造를 脱避하여 日本等 西方側에의 資本導入을 推進하고 있다. 73年에 257件의 設備導入交渉中 27件이 이미 完了되었고 延擧交渉 4億弗中 5,300萬弗이 完了되었다. 北韓이 日本으로 부터의 輸入趨勢 (73.11. 日朝貿易協會 發表)를 보면 1969年에 2,415萬弗에서 73年에 9,396萬弗까지 增加하고 있다.

産業構造面에서도 軍需産業爲主의 重工業偏重에서 나타난 産業構造의 不均衡을 是正하려는 努力이 胎動하여 消費財産業育成을 考慮하고 있다. 具體的 實例를 살펴보면 國防費에 있어서 72年 全豫算의 17% 割當에서 73年에 15.4% 74年에 16% 등으로 削減趨勢를 찾을 수 있으며 특히 6個年經濟計劃中 消費財生産을 強調하여 重工業間의 不均衡을 解消하려는 努力이 보인다. 73年 組織改編에서도 輕工業委員會傘下에 紡織 및 被服工業部, 日用品工業部, 地方工業部等을 設置하여 消費財産業育成策을 摸索하여 住民의 消費패턴 變化 可能性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은 變化要因이 있지만 全般的 經濟改革으로 인한 體制崩壞 憂慮도 現段階에서는 經濟改革으로 까지의 進展可能性은 희박하고 統制經濟體制를 堅持할 것이다.

그러나 長期的으로는 生産性向上의 限界累積, 資本·技術不足의 意識 각성이 增大하여 部分的 經濟改革試圖가 不可避할 것이며 이에 따른 體制變化 可能要因은 增加할것으로 判斷된다.

第 4 節 社会文化面

北韓은 党的 劃一的統制에 依해 社会構造의 硬直性이 露呈되어 왔지만 産業化, 工業化進展으로 社会構造分化要因이 나타나고 있으며 黨員과 非黨員사이의 葛藤等 社会的 不滿要因과 反体制思想의 潛在 등으로 變化徵候가 存在하고 있다고 본다. 이를 具體적으로 밝혀 보면 다음과 같다.

勤勞者中 技術專門家가 量的으로 增大하고 있다. 즉 60年에 134,000名, 70年에 498,000名 76年計劃에 100万名(統一朝鮮年鑑)으로 增加하는 趨勢와 都市化로 合理的思考의 抬頭可能要因이 되며 더욱 專門家의 量的增大는 이들의 自律性要求의 原因으로 作用할 것이다. 1945年부터 1967년까지 宗教地下運動이 展開되었던 事實과 73年現在 北送僑胞 92,000名の 存在 62年現在 東歐·蘇에의 留學生이 약 7,000名이었었다는 事實은 宗教 및 所謂 그들이 非難의 對象이 되고있는 「洋風」이 抬頭할 要素가 潛在하고 있는 것으로 把握해야만 할 것이다. 最近 北韓이 追求하고 있는 對外接近強化로 因하여 知識人 및 對外協力專門家들은 西歐와 接觸하는 過程에서 自己体制의 矛盾點에 對하여 批判的意識을 갖게될 것이 不可避하며 이 事實도 北韓社会變動의 促進變數로 作用할 것이다.

그러나 現在 北韓은 自己体制存続을 爲하여 社会分裂要因인 上記狀況을 最大한 抑制하고 더욱 社会統制를 強化, 体制硬直性을 持續하고 있다. 同時에 社会的 不滿이 潛在해도 上記한 統制로 因하

여 反抗的運動으로까지는 나가지 않고 있다.

長期的으로 보면 먼저 社会構造面에서 社会分化要因의 增大로 因하여 社会的 流動性이 增加할 것이고 産業社長의 共通文化現象抬頭는 体制의 硬直性이 部分的으로 緩和되어 構造的變化를 초래시킬 것이다.

社会意識面에서도 知識人 專門家の 量的增大와 消費構造의 多樣化는 自律性, 創意性, 合理性의 抬頭要因으로 作用할 것이고 同時に 体制批判的意識의 增加를 초래하여 社会的 活性化를 높여 줄 것이다.

第 6 章 結論 및 對策

第 1 節 結 論

北韓社會라는 한 社會體制가 어떻게 變化할 것인가에 對하여 이를 客觀的으로 把握하기 위한 方法으로 共產諸國의 變動事例와 全體主義社會變動에 關한 政治·社會學者들의 理論을 北韓社會에 適用한 結果가 上述한 第 5 章의 內容이다.

이를 要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短期的으로 볼 경우 北韓社會의 硬直性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全體主義體制的 基本屬性은 統治者의 個性 (Personality) 이 그 社會의 性格을 規定시키기 때문이다. 金日成은 「小스타린」으로서 自處할 정도로 獨裁的 統治者로 君臨하고 最近 그는 偶像化政策을 通하여 統治權力維持에 最大의 努力을 경주하고 있다. 金日成은 주변 國際秩序의 變化를 自己存立에 否定的要因으로 파악하여 對內的으로 더욱 強制的 統治手段을 驅使하고 있다. 孤立化를 脫皮코저 對外協力を 強化하면서도 對內政策面에서의 硬直性強化는 金日成의 體制存立의 不可避性을 代辯해주고 있다. 經濟面에서도 消費財育成考慮와 開放化經濟政策路線으로의 轉換徵候가 抬頭될 지라도 이의 擴大를 抑制하므로써 體制分裂要因을 最大한 防禦하고 있다. 社會文化的側面에서도 諸般思想教育體系와 組織力을 動員하여 潛在된 反體制要因의 顯在化를 抑制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같은 對內面에서의 硬直性은 더욱 더 對外狀況展開와

의 乖離를 增大시킬 것이며 葛藤增加로 因한 体制變動要因을 沮止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上述한 北韓의 狀況에 따라 對南政策을 推해보면 「對南人民民主主義戰略」에 立脚하여 소위 「敵對的矛盾」의 解決을 「힘의 哲學」 論理로 対応하여 긴장감을 高潮시켜 金日成統治集團의 体制維持手段으로 利用할 것이다.

그러나 長期的側面에서 北韓社會의 變動展望을 要約해보면 消極적이지만 어느정도 狀況變化에 適應할 것이라는 判斷이다. 이는 위에 살펴본바와 같이 東歐國 및 蘇聯·中共의 事例와 全体主義에 關한 社會理論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먼저 政治面에서 보면 社會의 機能的分化로 因하여 「黨派性理論」의 部分的緩和가 可能하다는 事實과 現支配層의 老衰化로 新人·專門家類型의 課業 Elite의 登場 및 世代交替가 不可避함으로써 政治的葛藤이 顯在化될 것이며 점차 政治的 多元化傾向을 露呈시킬 것이다.

經濟面에서도 技術·資本의 限界性으로 開放經濟體制도 轉換할 것이며 生産性的 限界克服策으로 部分的 經濟改革을 試圖하여 이는 결국 社會體制의 構造的分化를 招래시키는 要因으로 作用할 것이다.

社會文化面에서는 「Elite change」에 따라 「金日成唯一思想」의 虛構性이 露呈될 것이며 産業社會의 共通文化現象抬頭로 社會의 機能的分化와 社會的流動性 增大로 硬直性이 瓦解될 것이다. 또한 對外接觸努力過程에서 知識人의 体制批判的意識이 增加하고 「유메니즘적 社會主義」運動의 抬頭可能性을 排除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는

全体的으로 北韓社会의 活性化를 높혀 現在와는 현격한 變質이 豫想된다.

이와 關聯하여 對南政策面에서도 「힘의 哲學」을 拋棄하여 平和 共存狀況에 接近할것이다.

第 2 節 對 策 方 向

上記한 바와 같이 北韓社会를 展望할때 이를 더욱 우리 民族史의 未來統合模型에 接近시키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方向이 設定되어야 한다.

첫째, 北韓의 武力指向의 現象打破路綫을 平和共存体制接近으로 狀況誘導시킬 諸般對策이 講究되어야 한다. 이는 現對話通路를 계속 維持 및 發展시켜야 하고 對共產圈關係改善을 通하여 北韓을 緊張緩和에 接近토록 間接誘引시켜야 한다.

둘째, 北韓体制를 自己 스스로 改革토록 誘導시킬 方案이다. 먼저 韓國의 政治的 社会的安定으로 北韓이 對南戰略成功의 可能性이 없다고 自認토록하고 對內改革으로 方向을 轉換시켜야 한다. 또한 經濟的發展競争을 通하여 이를 促進시킬 수도 있다.

다음은 非政治分野의 交流를 實踐하므로써 北韓側이 韓國에 對한 客觀的認識이 可能해질것이며 敵對感도 相對的으로 減少하여 相互協力의 狀況으로 接近하여 갈것이다.